

碩 士 學 位 論 文

指導教授 金 三 鎮

개화기 이후의 남성 머리양식의
변천과 재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an's Hairstyles
Since the Late 19th Century's Civilization

2003年

漢城大學校 藝術大學院

패션藝術學科

扮裝藝術專攻

金 旻 佺

碩 士 學 位 論 文
指 導 教 授 金 三 鎮

개 화 기 이 후 의 남 성 머 리 양 식 의
변 천 과 재 현 에 관 한 연 구

A Study on Man's Hairstyles
Since the Late 19th Century's Civilization

이 論 文 을 藝 術 學 碩 士 學 位 論 文 으 로 提 出 함

2003年 6月

漢 城 大 學 校 藝 術 大 學 院

패 셴 藝 術 學 科

扮 裝 藝 術 專 攻

金 旻 佺

金旻健의 藝術學 碩士學位 論文을 認定함

2003年 6月

審査委員長 金志炫 

審査委員 高慧禎 

審査委員 金三鎮 

국 문 초 록

최근 우리 사회는 사람의 외모를 경쟁력의 한 요소로 인식하는 경향이 많아졌다. 이에 과거 미용을 금기시하였던 많은 남성들이 헤어연출 과 피부 관리는 물론이고 심지어 메이크업까지도 관심 갖기에 이르렀다.

남성 전용 미용실과 남성 화장품시장의 급성장은 좋은 일레이며 향후 남성들의 미용의 관심도는 더욱 증대될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연구를 하였다.

첫째, 전통적인 두발관을 신분과 부의 표시적 상징성, 효와 결연의 정신적 상징성, 금기(禁忌)와 액막음을 나타내는 주술적 상징성으로 나뉘고 찰하였다.

둘째, 개화기에서 광복이후까지 각 시대별로 유행 한 남성 머리양식을 파악하고, 변천에 영향을 준 시대적 요인과 배경을 연구하였다. 이는 머리양식과 패션의 변천은 사회, 정치, 경제적 상황을 반영하기 때문에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셋째, 개화기 이후의 남성 머리양식 중 몇 가지 헤어스타일을 재현해서 이를 현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또한 이. 미용에 사용되었던 도구와 기기 및 화장품의 특징과 변천과정을 정리하여 체계화하였다.

연구결과 시대의 배경은 헤어스타일에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머리길이를 짧게 또는 길게 함으로서 억압과 자유를 표현하고자 했다.

오늘 날 세계적인 흐름이 이.미용을 분리하기보다는 통합하고 있으며, 성(姓)의 영역이 모호해져 남녀의 구별이 적어지고, 과학의 발달로 이?미용 기법의 변화주기가 빨라지고 있다. 이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대처하기 위해서도 정확한 이용사(理容史)와 기술(技術)의 연구는 중요한 문제로 생각되어진다.

목 차

국 문 초 록

I.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3
3. 연구의 범위 및 방법	3
4. 용어정의	4
II. 이론적 배경	5
1.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두발관	5
1) 사회적 상징성	5
2) 정신적 · 심리적 상징성	7
3) 심미적 · 관상학적 상징성	11
4) 주술적 상징성	12
2. 이 · 미용사(理 · 美容史)	13
1) 외국의 이 · 미용사	14
2) 우리나라의 이 · 미용사	15
3) 우리나라의 이 · 미용사 면허제도	18
3. 이 · 미용에 사용되는 용구	20
1) 빗	20
2) 가위	21
3) 바리깡	24
4) 아이롱	25
5) 기타	26
III. 개화기 이후 남성 머리양식의 변천	27
1. 개화기에서 광복이전의 시대적 배경	27
1) 신분제의 붕괴	27
2) 단발령	28

2. 개화기에서 광복이전의 남성 머리형과 수식	30
1) 땡기머리	31
2) 상투	32
3) 하이카라머리와 중머리	34
3. 광복이후 시대적 배경과 남성 머리형	36
1) 1950년대	36
2) 1960년대	39
3) 1970년대	41
4) 1980년대	42
5) 1990년대	43
6) 2000년대 이후	44
 IV. 개화기 이후 남성 머리양식의 재현	47
1. 상투	47
2. 모판머리	50
3. 맘보머리	52
4. 상고머리	54
5. 염색이 가미 된 핑크형	56
6. 아이롱 퍼머	58
7. 드래드 머리	59
 V. 결론	61

참 고 문 헌

ABSTRACT

표 목 차

<표 1> 1950년대 서울시의 이·미용업소 현황	17
<표 2> 1997~2001년 이·미용 기능사와 기능장의 수	19
<표 3> 가위의 종류	23
<표 4> 개화기 남성머리 양식의 변천요인	30
<표 5> 광복이후 남성머리 양식의 변천요인	46

도 표 목 차

<도표 1> 최근 1년간 피부관리와 화장품사용의 경험도	2
<도표 2> 채용기준에서 외모를 고려하는 원인	2
<도표 3>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두발관	13
<도표 4> 연도별로 본 변천과정	63

사진 목차

<사진 1> 관자와 동곳 및 입영	7
<사진 2> 초기 철기시대의 나무 빗	20
<사진 3> 현재 사용되는	20
<사진 4> 살쩍밀이	21
<사진 5> 신라시대 가위	22

<사진 6> 조선시대 가위	22
<사진 7> 60년대 이용도구	26
<사진 8> 채두관	29
<사진 9> 개화기 남성의 헤어스타일	31
<사진10> 각종 땡기	32
<사진11> 남성의 땡기와 상투	33
<사진12> 하이카라머리와 중머리	35
<사진13> 50년대 유행 한 남성스타일	37
<사진14> 50년대 남성 헤어스타일	38
<사진15> 60년대 남성 헤어스타일	39
<사진16> 60년대 신문에 게재 된 포마드광고	40
<사진17> 미니스커트의 길이 단속	42
<사진18> 장발단속	41
<사진19> 남성잡지	44
<사진20> 2001년 남성화장품 광고	45
<사진21> 상투를 튼 남자 다섯명	47
<사진22> 갓을 쓴 글방도령과 총각	47
<사진23> 모판머리의 현대적 활용	51
<사진24> 맘보머리의 현대적 활용	53
<사진25> 상고머리의 현대적 활용	55

그림 목차

<그림 1> 각종 가위의 유형	22
<그림 2> 바리깡의 종류	24
<그림 3> 수동식 바리깡의 명칭	25

I. 서 론

1. 연구의 배경

불과 몇 십 년 아니 몇 년 전만 해도 미용은 으레 여성의 전유물로 인식 되었고 따라서 남성의 미용행위는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왔다. 문헌과 고증을 통해 고대(古代)에도 남성이 미용을 행했음을 짐작할 수 있고, 특히 한국 근대사에서 미용사(美容史)보다 이용사(理容史)가 더 먼저임에도 불구하고 남성 미용행위를 부정적으로 보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여기에는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겠지만 그중에서 놀이와 학습을 통해 익힌 성역할(性役割)이 가장 큰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를테면 사회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남자 아이에게 파란 색 옷과 칼을 주어 강인함을, 여자아이에게 분홍 색 옷과 인형을 주어 다소곳함을 무의식중에 강요하였다. 성장하는 동안에도 남자다움과 여자다움을 끊임없이 학습시켰고, 이런 성(性)의 구분은 남성들로 하여금 미용을 금기(禁忌)로 만들었던것이다.

몇 천 년 아니 몇 백 년 전처럼 수렵생활을 하고, 타 부족과 수시로 전쟁을 해야 하거나, 농경생활이 주를 이뤄 남성의 강한 힘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남성다움이 중요 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시대가 변했고 사회가 요구하는 남성상이 바뀌어 가고 있다. 지난해 20·30대 남성 972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¹⁾에서 71.0%는 ‘자신의 외모에 대한 타인의 평가에 신경을 쓴다.’고 답했으며 73.0%는 ‘외모 관리는 멋, 치장이 아닌 생활의 필수요소로 인식한다.’고 응답해 ‘외모에 신경 쓰는 것은 약점이 있기 때문’이라고 응답한 21.4%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였다. 또 60.3 %의 남성들은 간단한 피부 관리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그중 57.2%는 최근 1년 이내에 팩(pack)을 한 경험도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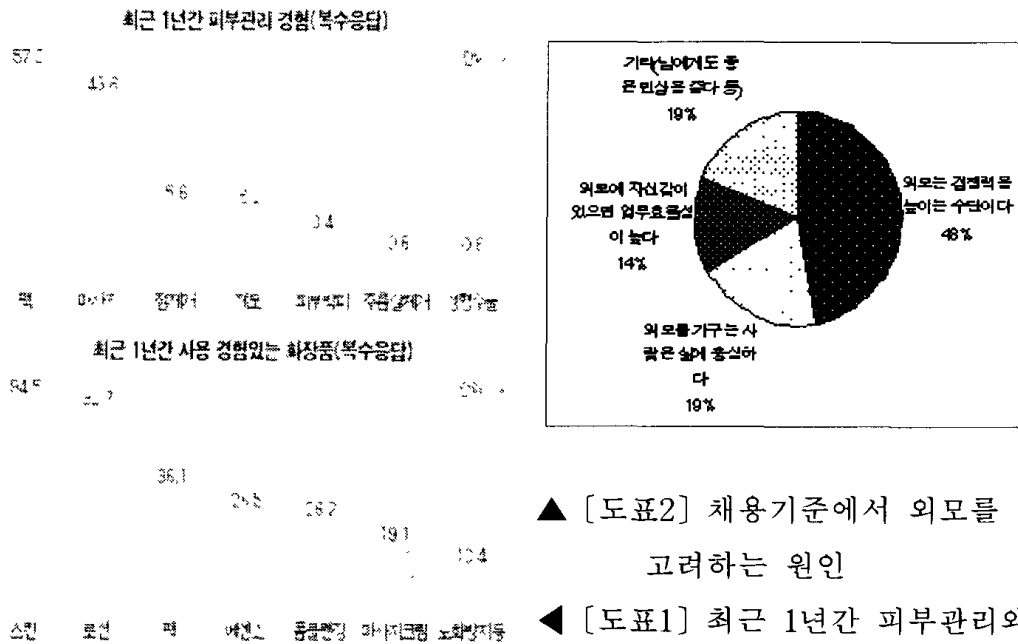
1) 브랜드메이저(www.brandmajor.com)
에 대한 의식”, 2002.10.16

), “남성들의 외모 및 피부 관리

[도표1]

그 외 외모와 관련 된 질문에서 20대는 헤어스타일, 얼굴 생김, 체형과 몸매, 패션의 순으로 관심을 갖은 반면, 30대는 헤어스타일, 체형 및 몸매, 얼굴 생김새, 피부, 패션의 순으로 관심을 보여 패션보다는 미용 쪽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입증하듯 2001년 약 2천 2백억 원대의 시장규모였던 남성 화장품 시장이 7~8%대의 꾸준한 성장을 가져와 2002년에는 약 2천 5백억 원대 시장으로 성장되었다.²⁾

또 다른 조사³⁾ 역시 인사 담당자들이 외모를 채용 기준의 하나로 고려하는 이유로 외모가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47.3%)이며, 외모에 자신감이 있으면 업무의 효율성도 증가(14.3%)된다고 답하여 남성 미용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도표2]



▲ [도표2] 채용기준에서 외모를 고려하는 원인

◀ [도표1] 최근 1년간 피부관리와 화장품사용의 경험도

이는 우리 사회가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는 경향이 많아 외모가 또 다른 경쟁력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하며, 더불어 현대 남성들이 그 어느 때보다 美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음을 입증한다. 그러나 앞서 언

2) 이덕영, “남성화장품시장 요즘 어떤가?”, 미용신문 CMN, 2002.10.23.

3) 중앙일보 2002년 11월 11일 40판 (‘잡코리아’에서 00.11~28일까지 인사 담당자 1,106명, 구직자 2,6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

급한바와 같이 머리를 다듬고 장식을 하는 행위가 여성의 것이라는 고정관념 때문에 선행 연구의 대부분이 여성의 머리형과 수식(首飾)⁴⁾, 여성미용, 의상 등에 치우쳐 있었고, 남성의 머리형이나 이·미용사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더욱이 연구자들 대부분이 복식 분야, 민속 분야, 미술 분야, 사학 분야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에 미용 분야가 주축이 되질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미용의 견지에서 남성머리양식의 변천을 다각적으로 고찰하고 이를 체계화하여 새로운 남성미용 문화사 정립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자 한다.

2. 연구목적

첫째, 전통적인 두발관(頭髮觀)을 당시의 세시풍속과 미용법에 연관지어 고찰한다.

둘째, 미용의 역사와 미용에 사용되었던 도구들의 변천과정을 정리하여 연구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개화기 이후 남성 머리형의 변천과 특징을 고찰하고, 변천에 영향을 준 사회적 배경을 분석한다.

넷째, 각 시대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남성의 머리형을 재현하고 과거와 현재를 비교 고찰하여 이를 현대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한다.

3. 연구범위 및 방법

연구의 시대적 범위는 크게 개화기에서 일제강점기(1876~1945년)까지와 광복이후(1945년~)를 십 년 단위로 구분하였다. 연구 방법은 문헌자료와 재현을 중심으로 하였으며, 전완길의 ‘한국화장문화사’, 이연

4) 李純慈. “우리나라의 女人의 머리형태 및 裝飾에 관한 고찰(考察)”, 이화여자교육대학 석사학위논문, 1976.

鄭美敬. “우리나라 여인의 머리모양에 관한 연구(研究)”, 국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김향란. “개화기 여자머리양식과 재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2.

복의 ‘한국인의 미용풍속’, 백영자의 ‘한국 복식문화’등의 문헌과 선행 논문 및 인터넷 등을 참고하였다. 그 외 풍속화·생활용품 등의 유물과 영화·잡지 등의 자료 및 원로 이용사(理容師)들의 구술을 통해 연구를 이론적으로 뒷받침 하고자 했으며, 머리형의 재현은 각 시대를 대표하는 머리형에 한하여 가발에 직접 시술 하였다.

4. 용어 정의

1) 이 · 미용

공중위생관리법(법률 제 6155호)에 의하면 ‘이용업은 손님의 머리카락 또는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이며 ‘미용업은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뜻한다. 크게 두부기술(頭部技術)·미장기술(美粧技術)·전신미용(全身美容)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 · 미용이라 함은 이용의 두부기술을 의미한다.

2) 수식(首飾)과 관모(冠帽)

두발을 꽂거나 묶어 고정의 용도와 장식의 용도로 사용되는 것으로 여성용은 비녀·찹지·떨잠·다리(月子, 假鬢) 등이 있고, 남성용은 동곳·풍잠·관자 등이 대표적이다. 관모란 머리에 쓰는 쓰개의 총칭으로 신분표현의 의례적인 기능과 아름다움의 심미적인 기능 및 방한(防寒)·방서(防暑)의 실용적인 기능이 있다. 대표적인 여성용은 건귀·몽수·족두리 등이며, 남성용은 건(巾)·복두(幘頭)·립(笠) 등이 있다.

3) 모발(毛髮)

본래 전신의 털을 의미하나 본 논문에서는 두발(頭髮)을 의미한다.

4) 이발소와 미용실

이발관, 이용원, 이용소, 미장원 등의 다양한 용어는 인용문인 경우는 원문을 그대로 따랐으나 그 외의 경우는 이발소과 미용실로 기록하였다.

II. 이론적 배경

1.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두발관

수발양식의 상징성을 연구한다는 것은 그 시대 사람들의 생활양식과 풍습, 문화 등을 이해하는데 귀중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⁵⁾ 따라서 본 연구자는 머리형의 변천사에 앞서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두발관을 당시의 세시풍속과 구전(口傳)된 미용법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회적 상징성

(1) 혼인의 의미

혼인여부에 따라 머리형에 차이를 두었는데 여성의 경우 미혼은 홍라(紅羸)로 묶은 땁기머리를, 기혼은 쪽머리를 했다. 남성 역시 미혼은 흑승(黑繩)으로 묶은 땁기머리를, 기혼은 상투를 틀었는데 간혹 혼례전이라도 관례(冠禮)의식을 통해 성인이 되었음을 상징하기 위해 상투를 틀기도 했다. 관례 날에는 福있는 사람을 집사(執事)를 삼은 뒤에 그 집사로 하여금 장가들 아이의 땁은 머리를 풀러 처음으로 쌍상투를 짜게 하였는데 이것을 총각(總角)이라고 했다. 잠시 총각을 만든 뒤에 다시 상투로 빗는데 상투를 한 뒤에는 성인이 된 것을 정식으로 인정받게 된다.⁶⁾ 이런 연유로 사대부 집안에서는 관례잔치를 혼례(婚禮) 잔치보다 더 성대하게 하였으며 보통 혼인날을 앞두고 길일을 택해서 행하기도 하였다.

미혼 여성도 성인이 되면 남성의 관례처럼 계례(契禮)의식을 했고, 혼례를 거치면서 귀 위에서 가늘게 땁았던 귀밑머리를 풀어 쪽머리나 엮은머리를 하였다. 이런 연유로 혼례를 ‘머리를 풀어 엮는다.’고 표현 혼례의 덕담으로 ‘귀밑머리가 파뿌리(흰머리) 되도록 잘 살라.’고 하는

5) 김용문, “수발양식의 상징성”, 한국민속학, 27집, 1995, p.80.

6) 백화량, “상투”, 조광 2(5), 1936, pp.137~138.

것이다. 이와 같이 처녀의 머리와 결혼한 부인의 머리는 땡은 가닥의 수만 보아도 쉽게 구별이 되었는데, 이는 백제(B.C.16~A.D.663)때부터 있어온 풍습이다. ‘북사(北史)’와 ‘수서(隋書)’에 “부인은 분(紛)을 바르나 눈썹을 그리지 않고, 처녀는 머리를 땡아 뒤로 드리웠다가 시집을 가면 두 갈래로 나누어 위로 틀어 올린다.”고 하였고, ‘주서(周書)’와 ‘통전(通典)’에는 “미혼녀는 머리를 땡아서 엮고 뒤로 한 가닥을 늘어뜨려 장식했고, 출가녀는 이를 두 가닥으로 늘어뜨렸다.”고 하였다.⁷⁾ 이런 계발의 풍속은 통구스·몽고·터키 문화권에서도 보여진다.

(2) 계급의 의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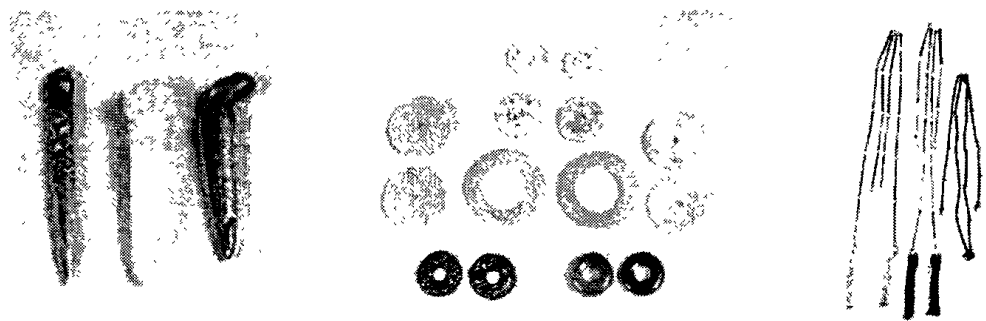
전통적인 성인 남성의 머리형은 상투였지만 천민인 백정은 장가를 들었어도 자식을 낳기 전까지 상투를 틀지 못했고, 길게 땡아 방석같이 머리 위로 둘둘 말아놓았다. 자식을 낳은 후에 상투를 틀게 되어도 망건이나 탕건 및 겨울철의 털모자 등 일체의 관모(冠帽)를 착용할 수 없었다. 머리형이외에도 남성의 수식(首飾)중에서 계급을 표시하는 대표적인 것으로 관자(貫子, 권자, 圈子)가 있다. 관자란 귀 위쪽에 위치한 망건의 부속품으로 직경 1~2cm내외의 고리모양이며 그 부분에 당줄(망건줄)을 걸어 망건이 흘러내리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했다. 관품에 따라 재질이나 문양을 달리 했는데 1~3품의 당상관은 금·옥 등을 사용했고, 3품 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는 뼈·뿔·호박·우제(牛蹄) 등을 사용했다.

여성의 경우 어여머리(於由美)는 궁중이나 양반집 부녀자들만 할 수 있는 예장용 머리형으로 서민에게는 허용되지 않았다. 비녀 또한 양반들은 금은주옥(金銀珠玉)의 용잠·봉잠 등을, 중인이하의 서민들은 목각(木脚)의 민잠 등을 사용하게 함으로서 재질과 문양에 따라 신분을 구분하였다.

7) 김용문, 앞의 논문, p.80.

(3) 富의 의미

관자와 같이 품계를 가리는 구실을 하지는 못했지만 귀천(貴賤)을 의미하는 수식(首飾)으로 동곳과 풍잠 및 입영(笠纓)이 있다. 동곳은 상투가 풀려지지 않게 고정시키기 위한 것으로 길이는 4cm전후이며 한 쪽은 꽃기 쉽게 뽕족하고 다른 한쪽은 뭉툭한 모양의 말뚝 형이거나 구부러진 형이다. 풍잠(風簪, 원산遠山)은 망건앞에 다는 장식품으로 갓이 내려오지 못하게 고정하는 역할을 하며 대개 4cm전후의 타원형 또는 반달모양을 하고 있다. 입영은 갓의 끈을 의미하는데, 남성수식인 동곳과 풍잠과 입영은 사치의 수단이 되어 금·은·호박·비취·산호·옥·나무·골각(骨角)등 다양한 보석이 사용되었다.



[사진 1] 동곳과 관자 및 입영8)(좌로부터)

여성의 경우 비녀나 뒤꽂이, 뿔잠 등의 장식품도 부(富)를 상징했으나 특이한 것은 높은 가체(假髻, 月子, 다리)를 이용한 높고 큰 머리형이다. 가체의 가격이 집 몇 채 값만큼 매우 고가(高價)였으므로 높게 올릴수록 부(富)의 표현이 되었다. 결국 무거운 가체의 무게로 인해 목이 부러져 죽은 사람이 생길만큼 사치와 폐단이 많아지자, 영조는 ‘가체금지령’을 내리고 엷은머리에서 쪽머리와 족두리 및 첩지로 바꾸도록 권하였다.

2) 정신적 · 심리적 상징성

(1) 효의 의미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受之父母) 부감훼상(不敢毀傷) 효지시

8) 숙명여자대학교소장품

야(孝之始也)’라 하여 부모에게 받은 머리카락을 손상하지 않는 것이
 孝의 시작이라는 孔子의 가르침으로 머리카락을 더욱 소중하게 여겼
 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머리를 단정하게 빗고 부모에게 문안을
 드리면 이를 본 부모가 기뻐하게 되므로 곧 孝를 행한 것이 된다.⁹⁾고
 여겼던 것이다. 심지어 흰 머리카락조차 마음대로 뽑지 않고 4월 16일
 을 ‘섭백일(鑷白日)’로 정해 그 날 뽑았다. 뽑혀진 머리카락 역시 함부
 로 버리지 않았으며 ‘유지 주머니’에 넣어 빗 함에 보관했다가 정월 초
 하루에 문밖에서 태웠다(燒髮風俗)고 한다.

(2) 순종(順從)의 의미

머리카락을 자를 수 있는 날이 한정된 당시 상황에서 머리카락을 자
 른다는 것은 매우 특별한 행위였다. 이를테면 사랑하는 임에게 신체의
 일부를 드린다는 의미로 머리카락을 잘라서 보내거나, 전쟁에 나가는
 연인들끼리 연정의 표시와 일편단심의 표시로 주고받았는데 만일 전사
 하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사라져버린다¹⁰⁾고 믿었기 때문이다.

1998년 4월 안동에서 31세로 요절한 이웅태씨가 미이라로 발굴된 적
 이 있었는데 그의 부인이 죽은 남편을 그리며 쓴 편지와 삼(麻)과 머
 리카락을 섞어 짠 짚신(대렴용)이 관(棺) 안에 함께 들어 있어 화제가
 되었다. ‘머리카락으로 짚신을 삼듯이 정성을 다한다.’는 옛말처럼 와병
 (臥病)중인 남편의 쾌유를 위해 천지신명께 기도하며 만든 짚신은 그
 염원의 간절함을 더한다.

회교의 율법은 여자가 머리카락을 남에게 보이는 것을 금지하고 있
 으며 남자에게 그것을 만지도록 하는 것은 부정(不淨)으로 여겨 더욱
 금하고 있다. 천주교에서 여성의 머리에 덮는 베일은 神에게의 복종을
 의미하며 크리스티교가 발달한 중세에 죄 많은 몸이라고 생각하여 신
 체를 드러내지 않고 특히 관(冠)이 중시된 것 도 같은 이유이다.¹¹⁾

9) 김용문, 앞의 논문, p.87.

10) 이연복외, “한국인의 미용풍속”월간 에세이 출판부, 2000, p.204.

11) 김용문, 앞의 논문, p.82.

(3) 위엄(威嚴)의 의미

머리는 신체 중에 제일 윗부분으로 다른 어느 곳보다 신성시하였고 높을수록 머리형과 장식이 비례하여 높아지고 화려해졌다. 여성들이 가채와 귀금속의 수식(首飾)으로 富와 신분을 표현하려 했다면, 남성들 상투 위에 상투관을 얹고, 그 위에 다시 탕건을 착용 한 다음 각종 冠을 또 올려주었다.

상(喪)을 당하면 머리를 풀어헤치는데 O. A 스우느하레는 ‘머리를 헤치는 전통’에 대하여 ‘육친(肉親)의 사망 때문에 자신의 모습에 주의 기울일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슬픔의 상태를 나타 낸 것 이다.’라고 또한 석고대죄(席藁待罪)를 청할 때도 죄인(罪人)임을 표현하기 위해 푸는데 이는 그만큼 위엄과 동떨어진 즉, 경황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요리사의 하얗고 긴 ‘토그 브란슈’란 모자 역시 경력이 오래 되 솜씨가 좋을수록 높아진다고 하니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한 자연스런 현상인 듯싶다.

(4) 결연(缺然)의 의미

스님이 되기 위해 출가할 때는 반드시 삭발을 해야 하는데 삭발은 단순히 머리카락을 자르고 머리모양을 간편하게 바꾼 것 이상의 의미가 담겨있다. ‘과거현재인과경’에 보면, 부처님은 삭발하면서 “이제 머리카락과 수염을 깎아서 일체 모든 번뇌와 습인(習因)을 남김없이 없애기를 발원하노라.”고 하셨다. 그리고 ‘비니모경’에서는 “교만을 제거하고 스스로의 마음을 믿기 위해 머리카락을 깎는다.”고 하였다. 이렇듯 긴 머리는 남을 의식하여 곱게 단장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 많은 번뇌를 일으키므로 ‘번뇌초(煩惱草)’ 또는 ‘무명초(無明草)’라고 한다. 그래서 스님들은 탐냄·성냄·어리석음의 삼독심(三毒心)이 일어나면, 먼저 자신의 삭발한 머리를 만져 봄으로써 번뇌를 멀리 여의고자 했던 것이다.¹²⁾

정신분석학의 창시자인 S. Freud는 머리를 자르는 행위를 거세(去勢)의 상징으로 보았다. 다른 정신분석학자들도 머리카락을 성(性)적 욕구의 표현을 상징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긴 머리는

12) 백남석, “백남석 법사의 불교상식 제28호 - 삭발편”, 불교신문, 2002. 8.

방중한 성에 대한 욕구를 표현하며 짧은 머리는 절제된 성에 대한 표현으로 보았다.¹³⁾ 이런 연유로 머리손질상태를 보고 그 사람의 성격을 추측하기도 하는데 머리카락 하나 제자리를 벗어나지 않게 하는 단단하고도 흠 없는 머리손질은 철저하게 규제되고 강력한 자기규율을 지닌 사람임을 알려준다. 헐렁하게 멋대로 휘날리는 머리모양은 보다 허점이 많고 개방적인 성격의 소유자임을 암시한다.¹⁴⁾

오늘날에도 투혼을 살리기 위한 농성장이나, 중요한 대회를 앞둔 경우 성공을 다짐하면서 결연의 의미로 삭발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는 두발이 갖고 있는 정신적 상징성 때문일 것이다.

(5) 통과(通過)의 의미

앞에 서술한 바와 같이 상투와 쪽머리를 하면서 성년이 되었음을 표시하였다. 이와 유사한 것으로 갓 태어난 어린 아기의 머리를 뽀뽀 깎는 유아삭발의례식이 있는데 더욱 새까맣고 많은 머리카락이 나도록 하기 위해서라 하지만 사실은 ‘신령에게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어린아기가 백일이나 돌이 되면 백일상이나 돌상 등 특별한 상(床)을 받게 되는데 그것은 삼신할매와 관계있으며 주로 그 상(床)을 차리기 이전에 머리를 미는 것이 일반적이었다.¹⁵⁾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전통이 이어져 오고 있는데 그것을 ‘백구민다’고 한다.

서양의 경우 동방정교회에서는 성구(聖句)를 읽는 사람을 특별히 임명하였는데 그들을 임명할 때 삭발식을 행했다. 일부 동방교회에서는 사제가 수도원 생활에 입문할 때 입회의례로서 머리를 삭발하기도 했다. 과거 가톨릭의 사제들은 머리의 중앙부분을 삭발(Tonsure) 했다. 사제들이 머리에 빵모자 같은 것을 쓰는 것을 보는데 그 모자 아래 부분에는 삭발했던 것이다. 지금은 삭발을 하지 않고도 그 의미를 살려 조그마하고 둥근 빵모자를 쓰고 있는 것이다.¹⁶⁾

13) 이상현, “민속문화의 전통과 외래문화”, ‘상투와 단발령 그리고 하이카라머리’, 집문당, 2002, p.100.

14) 오희선,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서울 교학연구사, 2000, p.176.

15) 이광호, ‘이슬람과 한국의 민간신앙’, 울산: 울산대학교 출판부, 1998, pp.135-138.

16) 이광호, “종교와 헤어스타일” 신앙과 지성, 제 20호, 2001, p.3.

3) 심미적 · 관상학적 상징성

(1) 심미적인 의미

美에 대한 기준은 시대나 지역에 따라 다르겠지만 美를 추구하는 욕구는 늘 존재하였다. 삼한시대의 진한과 변한에서는 어린 아이가 태어나면 머리를 돌로 눌러서 평평하게 하는 편두(扁豆)가 유행하였고, 고려의 충렬왕 때는 몽고의 영향으로 정수리 부분의 머리카락만 남기고 뒤통수에서 묶어 길게 땅아 내린 개체변발(改剃辮髮)을 하였다가 공민왕때 복고적 중흥정책으로 다시 상투를 틀게 되었다. 조선시대 때는 길게 땅은 머리일수록 아름답다고 하였으며 궁둥이 아래로 길게 내려와서 걸을 때마다 흔들흔들하는 것이 선호하였다. 이것은 역시 길게 땅은 머리의 선으로 느껴지는 유동적인 부드러움이 바로 우리가 즐겨하였던 미적 요소로 생각 할 수 있다.¹⁷⁾

태어날 때 받은 신체 중에서 두발양식만이 자유롭게 변화시킬 수 있는 유행의 변화가 매우 빠르며, 옷의 분위기에 맞춰서 연출하는 것이 가능하다. 더욱이 사람의 시선이 얼굴 주위로 먼저 오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울리는 머리형의 연출은 의복보다 중요한 미적요소이다.

(2) 관상학적 의미

조선 시대의 남성들 사이에서 털이 일찍 벗어지는 것을 출세하는 상으로 여기어 머리털이 빨리 벗어지지 않는 것은 딱하게 여겨서 상투를 틀고 망건을 맬 때 반드시 잔뜩 죄어 매어 빨리 벗어지기를 희망하고, 심지어는 족집게로 머리털을 뽑았다¹⁸⁾는 기록이 있다. 여성의 경우도 네모진 이마를 진수(螭首)라 하여 미인의 기준으로 여겼고, '이마가 좁으면 속도 좁다.'란 속설 탓에 족집게로 제모를 하였다. 당시의 족집게는 남·녀용이 구분 되었으며 남성의 것이 여성의 것보다 둥글고 크기가 좀 더 큰 것이 특징이다. 그 외에도 적은 머리숱은 내성적이며, 얇은 모발은 기운이 부족하고, 곱슬머리는 고집이 세다고 여겼다.

최근 미용실에 역학을 도입하여 '관상에 따른 헤어스타일'을 시술하는

17) 김용문, 앞의 논문, p.89.

18) 이연복외, 앞의 책, p.72.

곳도 등장할 만큼 얼굴형에 맞게 손질한 머리형은 좋은 인상 형성의 한 방법이다.

4) 주술적 상징성

머리카락과 관련된 세시풍속은 대개 액을 막고 무병장수를 기원하며 아름다운 머릿결을 갖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현재까지도 전해져 오는 6월 유두날과 5월 단오가 대표적이다.

유월 보름날은 불길한 것을 씻어내고 여름의 더위를 막기 위해 동쪽으로 흐르는 물에 머리를 감았으며, 계음(稷飮, 액막이로 모여 마시는 술자리)을 열었는데 이를 유두연(流頭宴)이라 하였다.¹⁹⁾ 또한 오월 초닷새날은 나쁜 귀신을 쫓는 의미로 창포를 끓인 물로 머리를 감았으며,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로 오시(午時)에 목욕을 했는데 이를 ‘단오물 맞이’라고 하였다.

삼월 삼짇날에는 머리카락 끝단을 조금 잘라 삼밭(麻田)에 묻었는데 이는 머리카락이 삼베처럼 길고 질기게 잘 자라기를 바라는 여인의 유감주술에 의한 행위였다.

섣달 그믐날은 ‘유지 주머니’에 일년 동안 모아두었던 자신의 뽀뽀머리카락을 문 밖에서 태웠는데 이를 소발(燒髮)이라고 하며 악귀의 접근을 막고자 하였다²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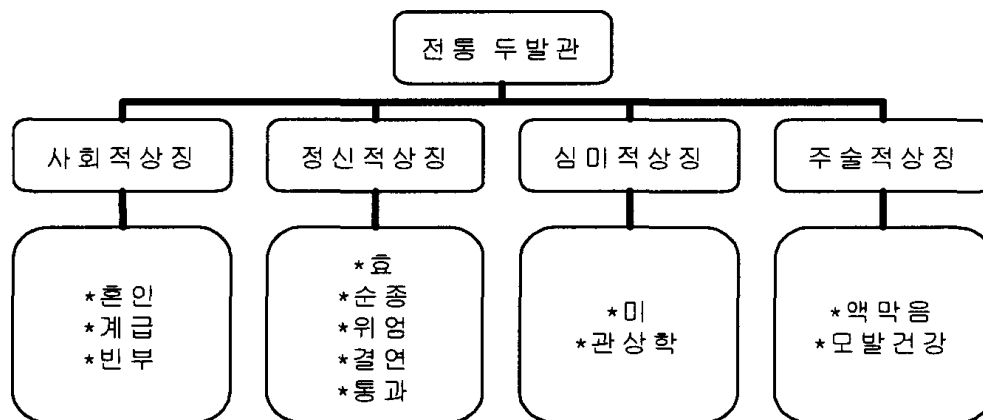
그 외에도 설날에서부터 열 이튿날까지의 12일 동안을 일진(日辰)에 의하여 ‘털날(유모일有毛日)’과 ‘털 없는 날(무모일無毛日)’로 나누었는데, 즉 12지지(地支)에 따라 일진을 정하니 자일(子日)은 쥐, 축일(丑日)은 소, 인일(寅日)은 호랑이, 묘일(卯日)은 토끼, 진일(辰日)은 용, 사일(巳日)은 뱀, 오일(午日)은 말, 미일(未日)은 염소, 신일(申日)은 원숭이, 유일(酉日)은 닭, 술일(戌日)은 개, 해일(亥日)은 돼지날이라 부른다. 이 열두 동물 중 털 있는 동물인 쥐·소·호랑이·토끼·말·염소·원숭이·닭·개·돼지날은 유모일이며, 용·뱀날은 무모일이라 하는데 설날이 유모일 일 경우는 오탁이 잘 익어 풍년이 든다고 전하며 털 없는 날일

19) 이석호편저, “동국세시기 / 열양세시기 / 경도잡지 / 동경잡기” 대양서적, p.84.

20) 이연복외, 앞피 책, p.189.

경우는 흉년이 든다고 한다. 대개 상점은 털 날에 문을 여는데 특히 인일을 좋아한다고 한다. 털날을 택하는 이유는 털과 같이 번창함을 뜻하는 이유가 있는 것이다.²¹⁾

인도·스리랑카의 불교사원에는 부처의 두발과 치아가 부적으로 장식되어 있는데 이는 외국에서도 모발을 성물시(聖物視)하여 주술적인 상징성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도표 3]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두발관

2. 이·미용사(理·美容史)

이용의 기원을 확실히 알 수 는 없지만 길게 풀어헤친 두발이 일상 생활에서 특히, 노동에 종사할 경우에는 거추장스러웠을 것이다. 따라서 부드러운 나무껍질과 질긴 풀잎 등으로 초보적 단계의 결발(結髮)이 생겨나고, 시대가 지나면서 점차 다양한 양식으로 발전한 것으로 추측된다. 두발을 묶어 올린다는 것은 여성에게만 주어진 특권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지만 남성이 여성보다 노동범위가 넓고 크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결발사(結髮史)에서는 길게 늘어진 머리를 묶어 올리기 위한 연구가 남성 쪽에서 먼저 시작되어졌을 것이다.²²⁾

21) 서울시 역사편찬위 “서울육백년사”

22) 조기여 외, “일본 남서의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3(4) 2001, p.337.

1) 외국의 이容사(理容史)

서양의 이容사(理容史)는 바빌로니아의 함무라비왕(재위 BC 1728~BC1686)이 제정했던 함무라비법전에 ‘이容을 업으로 하는 사람’이 의사의 보조자로서 외과수술이나 이(齒)의 치료를 직접 했다는 기록이 있어 이보다 좀더 오래 되었으리라 추측하고 있다. 중세에는 상처의 치료나 피를 뽑는 일 등의 일반적인 외과업무도 겸하였는데 이를 이발의사(理髮醫師)라고 하였다. 현재 이발소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빨강·파랑·하양의 줄무늬가 들어있는 사인 보드(sign board)는 동맥·정맥·봉대를 상징하던 당시의 관습에서 비롯된 것이다.

15C 이발사들은 마사지(massage)와 샴푸 및 고객의 목욕까지 영역을 넓혀 시술 하였고, 이때부터 공중목욕탕에서 이발사가 머리카락을 손질해 주었으며 이후에도 머리카락과 턱수염을 손질하는 것은 목욕탕에서의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기술을 개선하기 위해 세인트 코스마스 협회에 의해 1250년 이발사를 위한 학교가 설립되었고, 규칙에 따라 이발사는 4년간의 수련과정을 거쳤다. 이발사에게 반드시 필요한 작업도구는 면도칼, 숯돌(가위를 연마시키기 위한), 가위, 세면통이었고 직업의 표시로서 현재와 같은 사인보를 가게(shop) 밖에 걸어두었다. 한도시에서 이발에 종사하는 총인원은 무척 많았는데 프랑스 파리만해도 1292년에 151명의 이발사가 있었다고 한다. 이발사 길드(조합)의 후원자는 세인트코스마스를 비롯해서 세인트 데미안, 영국의 침례교도 세인트 존 까지도 포함되었고, 길드에서는 노동금지령을 정하여 일요일과 축제일에는 이발사들도 휴식을 시행하였다.

중세시대의 고위층 기독교인, 주교수도 원장은 일반적으로 법률에 의해 주로 짧은 머리 스타일(short style)을 하였고, 교회의 통치에 복종 의미로서 삭발이 시행되었다. 가느다란 머리카락(fine hair)과 대머리(baldness)를 불행으로 간주하여, 다양한 탈모예방법과 발모제에 대한 연구가 성행하였고, 멧돼지 털이나 고슴도치 털로 만든 브러시가 사용되었다. 1637년 12월 이발사와 가발 제조자의 길드(협동조합)가 파리에 결성되었으며, 파리 최초의 헤어 드레서인 상파뉴는 파리 궁전에서 이름을 떨쳤다.

1804년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제 1제정 당시에 인구가 급증하고 점차 복잡해지자 이용원과 병원을 겸할 수 없다고 인식한 나폴레옹 정부의 위정자들은 프랑스 최초의 이용사 장 바버(Jeang Barber)를 통하여 병원과 이용원을 분리하여 이용을 전문직으로 구분하였다. 본래 라틴어의 턱수염(barba)에서 유래 된 바버(Barber)는 현재도 이용사를 의미하며 이용원은 그의 이름을 따서 바버숍으로 부르고 있다. 1871년 바리캉마르 회사가 바리캉(Bariquant)을 발명해 사용 되었으며 발전을 거듭하여 현재는 전자식 바리캉인 클리퍼(Clipper)가 발명되어 사용되고 있다.²³⁾

이웃나라인 일본에서는 1872년 일본 귀족 출신인 목촌 중량이 서구 문명을 받아들여 이용기술을 연구한 끝에 마침 일본 정부의 삭발령 선포를 계기로 우리나라의 상투머리와 비슷한 ‘쑤마게’를 잘라내고 허리 찬 긴 칼을 버리도록 했다.²⁴⁾

2) 우리나라의 이 · 미용사(理 · 美容史)

상투와 땡기머리로 대표되던 우리나라 남성 헤어스타일의 변화조짐은 1881년에 나타났다. 당시 신사유람단으로 일본에 간 서광범이 체류 중 양복을 입어보고 상투를 풀어 머리를 자른것인데²⁵⁾ 이는 조선 최초의 단발 기록이다. 이후 일본은 고종에게 단발을 종용했고 급기야 국왕의 상투는 정병하가, 왕세자의 상투는 유길준이 자르게²⁶⁾ 된다.

1895년 내려진 단발령을 계기로 정부차원에서 우리나라 근대 이용사(理容史)가 시작되었고 이와 함께 새로 생겨난 직업이 지금의 이발소 격인 ‘개화당 제조소’라는 하이카라 장사였다. 한국인이 운영하는 최초 이발소는 1901년 인사동 조선극장 터에 유양호가 개업 한 ‘동호이발소’였다. 그는 후에 세종로 네거리 비각 모퉁이로 자리를 옮기고 광화문 이발소를 개업했지만, 인사동 시절만 해도 상투를 찢고 백호를 친다는

23) 김수원, “이용기술”, 서울 영인문화사, 2000, p.215.

24) 박상근, “이 · 미용 연감”, 한국미용예술문화원, 1999, p.19.

25) 조선일보 1999. 4. 6.

26) 역사신문편찬위원회, 「역사신문」, 서울 사계절출판, 1996, p.63.

광고를 써붙였다고 한다.²⁷⁾ 이보다 조금 늦게 개화사상과 신문화 운동으로 조직된 방역회(防疫會)의 안중호가 광화문 근처에 ‘태성 이발소’를 개설하였다. 안중호는 당하관 벼슬인 군수였으나, 황제의 전속 이발사로 발탁이 되면서 정삼품 당상관으로 승진하게 되었다.

‘동호 이발소’와 ‘태성 이발소’의 개업은 1920년 종로에 생긴 최초의 미용실인 ‘경성미용원’²⁸⁾보다 이십여 년 앞선것이었다. 당시에는 일인(日人)이 경영하는 이발소도 있었는데 1904년 대구에 거주하는 일본인들 중에 이발소 영업을 하였던 사람은 총 9명이었다. 대구에는 천여 명의 일본인들이 거주하고 있어 경성과 부산에 거주하는 일본인보다 훨씬 적은 수였다. 따라서 경성과 같이 일본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는 일본인들이 경영하는 이발소가 존재하였다고 추측할 수 있다.²⁹⁾

전국이용사총연합회(社 한국이용사중앙회 전신)와 대한미용협회(社 대한미용사중앙회 전신)가 1946년과 1957년에 창립되면서 이·미용업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서울시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이·미용업소 수가 1953년에 각각 269개와 158개였던 것이 1961년도에는 1,510개와 1,553개로 증가하였고, [표1] 이·미용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수도 1967년 이용업에 49,440명, 미용업에 25,621명이란 기록이 있다.³⁰⁾

이·미용실이 수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보건 위생에 관한 감독도 화되었고, 1960년 10월 15일에는 보건사회부의 지시에 따라 경찰국의 위생반(이미용업의 영업허가 및 단속)과 단속반(영업감사를 담당)이 담당했던 위생사무 일체를 서울시 사회국 위생과로 이관하였다.³¹⁾ 1962년 3월에는 이발소 22곳과 미용실 16곳이 3~30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1966년 7월에는 서울 시내 전체 이발소과 미용실에 대한 안전

27) 박상근, 앞의 책, 37p

28) 1920년 7월 29일자 동아일보의 광고에 ‘경성미용원’의 광고가 게재된바 있는데 이는 일인(日人)이 운영했던 것이며, 한국인이 경영하는 최초의 미용실은 1933년 오엽주 여사의 ‘화신미용실’로 알려져 있다.

29) 박현수, “植民地都市에 있어서 일본인사회의 형성-1900년 무렵 부산과 대구의 경우”, 영남대문화인류학연구회, 인류학연구 제5집, 1990, pp.9-19.

30) 김국도, “이용기술”, 서울 강경문화사, 1962, p.296.

30) 서울신문 1960.10.22.

도 실제검사를 실시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연도	53	54	55	56	57	58	59	60	61
미용실	158	347	461	583	746	969	1,225	1,402	1,553
이발소	269	384	485	635	723	851	1,015	1,134	1,510

[표 1] 1950년대 서울시의 이·미용업소 현황 <단위 ; 개>

당시 이·미용업소의 요금은 관허(官許)로서 업자가 물가사정위원회(物價査定委員會)로 인상을 요청하면 물가사정위원회는 이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게 된다. 국무회의에서는 요금을 결정한 후 다시 각 시·도 물가사정위원회 통고³²⁾를 함으로서 시행되는 것으로 1967년도말 이발 요금은 130원, 목욕료는 40원, 커피 값은 30원, 쇠고기가 600g에 230원이었다고 한다. 업소측이 관허요금보다 올려 받으면 영업허가가 취소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는데 1968년 3월 9일에 협정요금 위반업소로 이발관 1곳이 적발되어 5일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는 기록이 있다.

1960년대는 여성들도 이발소에서 머리를 했으며 가랑머리와 짧은 일자 단발머리가 유행이었다. 외진 곳의 가정에는 직접 방문하여 이발을 해주었고, 돈 대신 곡물이나 다른 작물로 받아오기도 했었다. 1970년대에는 묵계적으로 이뤄졌던 목욕탕내의 이용영업을 정식으로 허가를 내주었지만 장발이 유행하면서 이용업계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 반면 미용실은 여성들의 사회활동을 높이기 위해 미용과 양장을 장려한 정부의 기술보국(技術輔國)정책과, 80년대의 유니섹스 무드로 젊은 남성들이 미용실을 출입하면서 급성장하게 되었다. 그 결과 1970년만해도 이발소가 25,103개로 14,114개였던 미용실보다 많았으나, 1985년에는 미용실수가 42,081개로 28,298개인 이발소보다 2배정도 많아지게 되었다.

90년대 중반 이후 이용업계는 제2의 도약을 위해 신기술을 개발하고 시설을 보완하는 등 활로를 마련하고 있으며, 남성전용 미용실과 피부관리실 및 화장품이 지속적으로 등장하고 있다. 우리나라 남성전용 미용실의 효시격인 ‘블루클럽’이 1998년 6월 창립되었고, 2003년 5월 현재

32) 서울신문 1954.10.28.(1995.9.7)

전국에 지점이 500개가 넘을 만큼 성황을 이루고 있다.

현재 법률상 이용과 미용을 하나로 간주하는 나라와 둘로 구분하는 나라가 있는데 세계적인 추세는 이용과 미용을 하나로 통일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굳이 이용과 미용을 구분하기보다는 서로 영역의 장단점을 파악하고 보완하면서 공생하려는 노력이 요구되고 있다.

3) 우리나라 이·미용사 면허(자격)제도

우리나라의 이용사 시험제도는 1923년 日人인 야마모토(山本神崎)가 최초의 강습회를 주관했으며 그해 가을에 국가가 시행하는 이용사 자격시험을 시행하게 되었다. 당시에는 뚜렷한 교육기관이 없었으므로 대부분 선생에게 사사해서 기술을 익혔고 의학박사인 주방주씨가 저술한 ‘위생독본’으로 독학을 하는 수준이었다. 해방 이후 서울특별시의 이 시험 실기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이후 부터였고 부산직할시의 시험은 1954년도부터 실시되었으나 그 후 내무부산하 각시 도에서 이·미용사법에 의거하여 실시했으나 그후 1983년도부터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서 한국직업인력관리공단(현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보사부에서 제정한 공중위생법에 의거하여 실시하고 있다.³³⁾

본격적인 이용의 교육 역시 6.25사변이후 사회가 급변함에 따라 몇 군데에 사설학원과 (고등)기술학교가 생겨나면서 이뤄지게 된다. ‘서울특별시 교육위원회 연보’에 의하면 1960년 서울의 고등기술학교는 17개 교로 설치학과는 미용과가 9개, 조산(助産)간호과가 6개, 이발과(理髮科)가 5개로 각각 1개씩 개설 된 상업과 경리과, 전기과(電氣科), 전자과(電磁科)보다 우세했다. 또한 서울의 사설강습소는 1960년에 185개로 수강생의 수는 16,496명이었는데 직업기술 부문에서는 미용·이용 부문이 가장 많았다. 1960년부터 이·미용업무를 담당하게 된 서울시 사회국 위생과 위생계는 매년 1회씩 이·미용 자격시험을 실시하였고, 합격한 자에 한해서 자격증을 획득 할 수 있었는데 응시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서울시장(서울시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각 도지사(道知事)가 인가한 이발·미용학원에서 6개월 이상 소정의 과정을 수료한 후 6개월

33) 이용교재연구회, “종합이용이론”, 서울유신출판사, 1998, p.23.

이상 실시 이용업무에 종사한 자 ②3년 이상 이용업무에 종사한 자 ③ 외국에서 시행한 이·미용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³⁴⁾ 이었다. 오늘날의 이용사 자격검정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주관하며 필요한 경력과 학력의 제한은 없다. 검정은 1년에 4회 치러지는데 필기과목은 공중 위생관리법·전염병학·소독학·피부 관리학 등이고 실기과목은 조발·면도·세발·드라이·화장술 등이다. 상위 국가자격증으로 이용기능장이 있으며 응시자격은 자격증 취득 후 실무경력 8년 또는 실무경력 11년 이상의 자중에 소정의 시험을 통과해야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자료에 의하면 2001년 이용사 자격증 소지자는 36,689명이고, 이용장은 13명이다. [표2]

이 용 사 (명)		연 도 (년)	미 용 사 (명)	
이용 기능사	이용 기능장		미용 기능사	미용 기능장
36,689	13	2001	308,704	136
35,300	9	2000	290,262	107
33,589	7	1999	269,812	62
30,800	5	1998	241,013	30
28,621	5	1997	218,483	17

[표2] 1997~2001년 이·미용 기능사와 기능장의 수

3. 이 · 미용에 사용되는 용구

이용에서 사용되는 용구들은 도구, 기구, 기기, 제품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의 역할을 도와주는 것은 도구, 물건을 담을 수 있는 기구, 동력을 이용한 것은 기기, 소모적인 것은 제품이라고 하는데 항상 청결과 안전사고에 유의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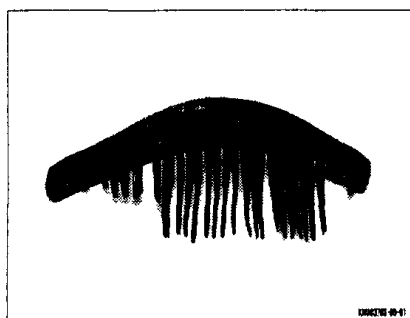
1) 빗

빗의 역사는 약 5000여 년 전부터 사용되었다는(승문시대 ; 일본의 줄문토기시대) 문헌이 있고 이용에서 빗은 가위와 함께 없어서는 안될 도구이며 일상생활에서도 중요한 생필품이 되었다. 삼국시대 이전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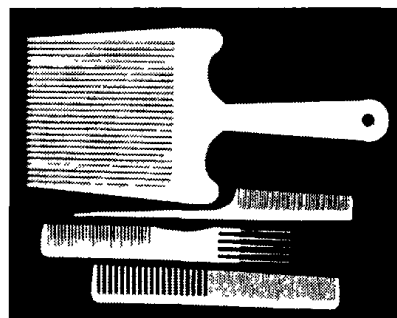
34) 서울특별시공고 제219호 「제11회 이발사 및 미용사 자격시험 공고」 1958년 8월 18일

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유물론 초기 철기시대 것으로 광주광역시 광사구 신창동 264-3번지 일대 출토 빗 [사진2] 이다.³⁵⁾

빗몸(등)에 낙화(烙畵)를 그리거나 금사(金絲)를 각종 꽃무늬를 상감하고 그 속에 청옥(靑玉)을 박아 넣을 만큼 빗의 재질과 장식이 사치스러웠던 적도 있었고, 빗에 이름을 붙여 빗에 대한 애착심을 표현하기도 했다.



[사진2] 철기시대의 나무 빗³⁶⁾



[사진3] 현재 사용되는 빗

빗의 구조는 빗살 끝, 빗살, 빗살 뿌리, 빗 몸 등으로 되어 있고, 좋은 빗이란 내열성과 내구성이 좋고, 빗살 간격이 균일하며, 빗 몸이 휘지 않아야 한다.

빗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 뼈(骨)빗 · 뿔빗 · 나무빗 · 에보나이트셀로이드빗 · 나일론빗 · 플라스틱빗 · 베이클라이트빗 · 금속빗 등이 있으며, 용도에 따라 커트빗 · 정발빗 · 퍼머빗 · 아이론빗 · 나일론빗 · 세트빗 · 염색빗 · 참빗 등이 있다. 또한 빗살간격으로 구분하기도 하는데 중국에서도 소(梳)라는 것은 치(齒)가 성긴 것을 말하고 촘촘한 것은 비(比)라³⁷⁾고 부르며 두 종류를 총칭하여 즐(櫛)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역시 열레빗과 참빗으로 나누는데 열레빗은 빗살이 성긴 것으로 긴 머리카락을 빗질할 때 사용되었으며 참빗은 빗살이 촘촘해 열레빗질 후 머리를 가지런히 하기 위해 사용하거나 비듬제거와 이와 서캐를 가려

35) 김문자, “삼국시대 머리 장신구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9(5), 2001. pp.712~722.

36) 국립중앙박물관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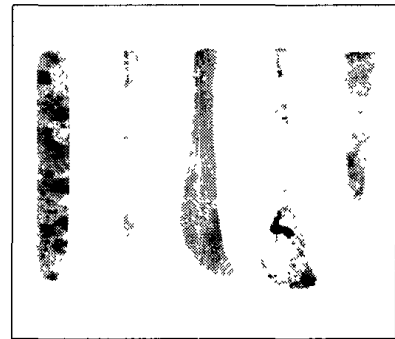
37) 김문자, 앞의 논문, pp.712~722.

내기 위해 쓰였다.³⁸⁾ 열레빗의 크기는 작은 것이 두치정도였으며 재질은 쇠뿔, 상아, 대모(玳瑁, 바다거북의 등껍질), 산유목 등이 사용되었다. 그 중 쇠뿔이나 산유목으로 만든 제주산을 상품으로 쳤으며 상아로 만든 빗은 상류층에서 사용하는 희귀품이었다.

빗의 모양은 대부분 반월형이었으나 후에 열레빗과 참빗이 한 몸에 붙어 있는 사각형도 나오게 되었다.

그 외 남성의 수발과 관련 된 도구로 ‘살쩍밀이’란 것이 있는데, 상투를 틀고 망건을 둘렀을 때 빠져나온 잔을 망건 안으로 밀어 넣는 도구도구이다.

최근에는 대부분 합성수지로 된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며 드라이나 아이롱과 같은 기계의 사용으로 열에 강한 것을 선호한다. 현행 공중위손님 1인당 빗의 사용을 1개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용 후에는 항상 청결히 소독하여 보관해야 한다.



[사진4] 살쩍밀이³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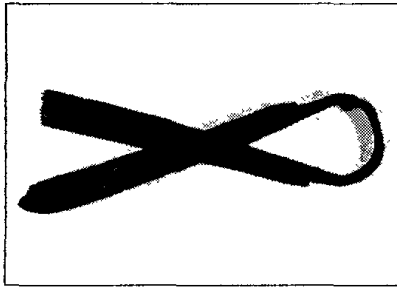
2. 가위

지레의 원리를 응용한 2개의 날(刀)이 서로 엇갈리면서 옷감·종이·모발 등을 자르는 도구로 교도(交刀)·전도(剪刀)·협도(鉋刀)라고도 한다. 가장 오래 된 유물은 BC 1000년경 그리스에서 만들어진 철제 가위로 양털을 깎는데 주로 사용되었다. BC 27년 경 로마의 철제 가위는 서양가위의 전형적인 모양을 하고 있으며, 중국의 가위는 퉁양(洛陽) 부근의 전한시대의 무덤에서 출토된 것이 최초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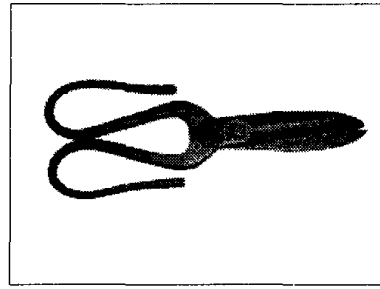
우리나라 최고(最古)의 가위는 분황사 석탑에서 나온 신라시대 것으로 손잡이는 없고 날을 엇갈려진 형이다. 고려시대 유물에는 신라의 α형과 오늘 날의 X형이 함께 발굴되었으며, 조선 말기에는 오늘 날의 가위와 사용법이나 형태가 유사한 것이 등장하였다.

38) 이연복외, 앞의 책

39) 한양대학교 박물관 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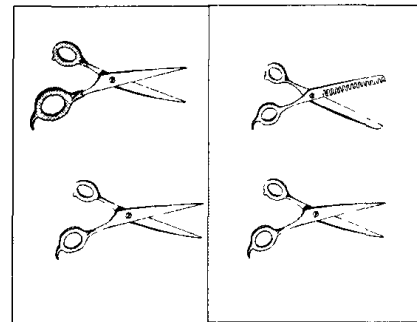
[사진5] 신라시대 가위⁴⁰⁾



[사진6] 조선시대 가위⁴¹⁾

원로 미용인 이행숙은 불과 50년대만 해도 이·미용 커트가위를 좀처럼 구하기 어려워 바느질 가위로 커트를 했다⁴²⁾고 적고있다. 60년대 후반부터 제기능을 하게 된 이·미용 가위는 사용목적, 재질, 손잡이형, 제조방식, 날의 각도 및 형태에 따라 종류를 구분하는데 대개는 조발가위, 단발가위, 턴닝가위로 칭한다.

조발가위는 장가위라고도 불리며 커트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길이는 5.5~7.5inch이다. 가볍고 날이 얇은 단발가위는 미니가위라고도 불리우며 5inch이하로 세밀한 커트에 용이하고 손목에 무리가 적다.



술가위로 불리는 턴닝가위는 모발의 술을 조절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주고자 할 때 사용하며, 홈(발수)의 개수나 모양에 따라 다시 분류되어진다. [그림1]

좋은 가위란 가위의 시술자의 손에 맞아야하고, 양날의 견고함이 같아야 하며, 잠금나사의 조임 상태가 적당해야한다. 사용할 때 주의점은 전에 모발에 물을 충분히 적셔 가지런히 정리하고 빗질로 모발에 끼여있는 이물질 제거하여 가위날의 마모를 최소화해야한다. 또 모발 이외의 것은 커트하면 가위날이 무뎌지지 쉽고, 바닥에 떨어지면 날이 벌어지기 쉬우므로 주의해야 한다. 사용 후에는 녹이 슬지 않게 머리카락이나 물기를 마른 헝겊으로 닦아주고, 잠금나사에 기름칠을 하여 가위

40) 국립 경주박물관 소장

41) 강원대학교 박물관 소장

42) 박상근, 앞의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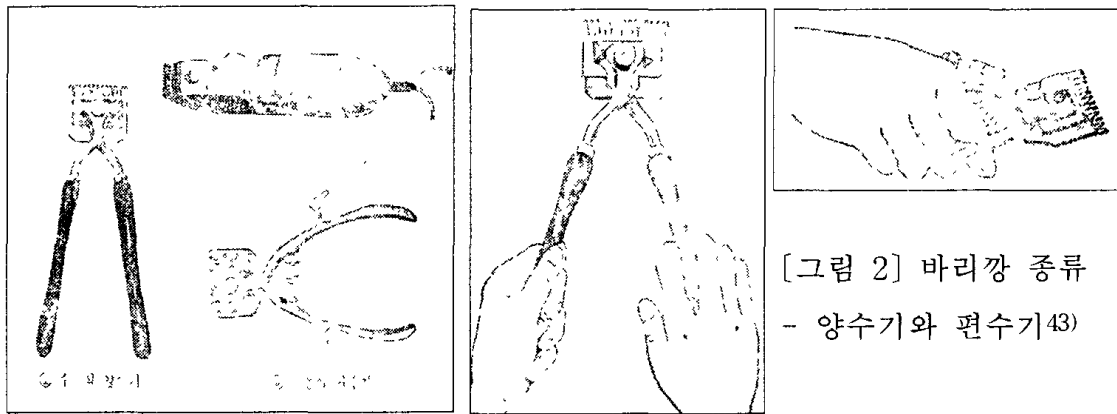
의 개폐가 원활하도록 해준다. 가위의 날이 무뎌지면 커트 형이 살지 않고, 모발에 손상을 줄 수 있으므로 날을 갈아주는 것이 좋다. 날을 가는 방법에는 숯 돌에 가는 방법과 그라인드 페이퍼 원판에 올려놓고 가는 방법 및 다이아몬드로 연마한 후 가죽이나 마이크로 필름을 이용해 날을 세우는 방법이 있다.

기 준	가위명칭	특 징
사용목적 분 류	조발가위	보편적으로 사용하며 길이는 5~7.5inch
	단발가위	세밀한 커트에 사용하며 길이는 5inch이하
	틴닝가위	길이는 짧아지지 않고 술만 조절할 때 사용
재 질 분 류	착강가위	손잡이와 가위 날 부분의 금속이 다른 경우
	전강가위	손잡이와 가위 날 부분의 금속이 같은 경우
손잡이형 분 류	스트레이트형	위와 아래 손잡이의 길이가 같은 경우
	언바란스형	위와 아래 손잡이의 길이가 다른 경우
	플렉스형	아래 손잡이가 360°로 회전하여 손목의 무리 적음
	인체공학적형	손잡이 형을 손의 형태에 따라 디자인
제조방식 분 류	단조가위	두들겨서 만든 고급가위
	포징가위	금형에 녹인 쇠를 넣어 제작하므로 대량생산 가능
기 타	날의 형태	검형, 반검형, 배형, 톱니형 등
	표면처리방식	광택, 무광택, 산화처리 등
	금속의 종류	스테인리스, 코발트, 세라믹, 강철, 티타늄 등

[표 3] 가위의 종류

3. 바리깡

1871년 프랑스의 바리깡 마르(Barican & Mmarr)제작소의 창시자 바리깡에 의해서 발명된 것으로 그 명칭이 보급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10년경 일본에서 수입하여 보급되었고, 바리깡(バリカン)으로 부르면서 일본어처럼 인식되었다. 바리깡(bariquant, 弗), 클리퍼(Clipper, 英) 표현되는 바리깡은 여러 개의 가위가 동시에 작용하는 것처럼 많은 양을 한꺼번에 자를 수 있고 아주 짧게 자르는 것도 가능하다.



[그림 2] 바리깡 종류
- 양수기와 편수기⁴³⁾

바리깡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작동방법과 날의 두께로 구분하는데, 작동방법에 따라 수동식과 전동식으로 나누고, 수동식은 다시 양 손을 이용하는 양수기(兩手機)와 한 손을 이용하는 편수기(외수기)가 있다. 현재 양수기는 거의 사용하지 않지만, 편수기는 간혹 사용되기도 한다. 오늘 날은 대부분 전동식 바리깡을 사용하고 있으며 전선(電線)의 유무에 따라 무선(無線)과 유선(有線)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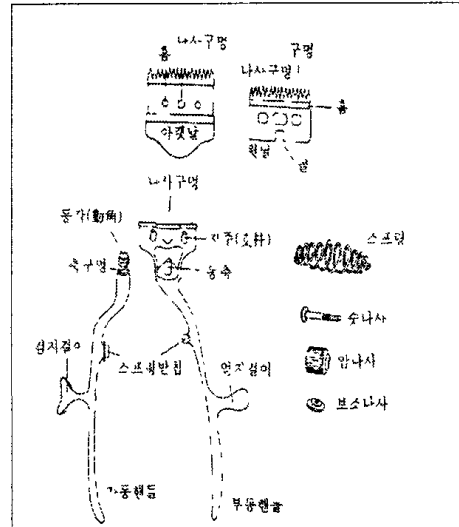
바리깡의 원리는 밑날과 윗날이 교차하면서 날 사이에 끼워진 모발을 자르게 되는데, 이 때 윗날은 좌우로 움직여서 밑날과 함께 모발을 절단한다. 또 밑날은 윗날의 작용과 공동으로 모발을 자르는 역할을 하는 동시에 모발을 같은 길이로 간추리는 빗의 작용도 한다. 밑날의 두께는 1mm, 1.5mm, 2mm, 3mm, 5mm, 7mm, 9 mm,의 7종으로 구별되어 있으나 1mm 이하의 바리깡이나 10mm 이상의 바리깡도 사용되고 있다.

바리깡의 기본동작에는 연속깎기, 밀어깎기, 떠올려 깎기, 술치기 깎기 등이 있다. 연속 깎기란 빗을 떠올려 깎기로 쥐고 두피면에 따라 빗과 가위로 연속깎기를 하는 기법이고, 밀어 깎기란 빗을 밀어 깎기의 쥐기로 잡고 빗살 끝을 두피면에 대고 깎아 나가는 기법으로 주로 단발(짧은 머리)부위에 사용된다. 떠올려 깎기란 빗을 두피면에 대고 빗살을 두발 밑까지 충분히 넣고 두피면수직선상에 두발을 떠올려 일으켜서 빗살에 일직선상으로 갖추어 자르는 기법이며 주로 장발 부위에

43) 김국도, “이용기술”, 서울 강경문화사, 1969, p81.

이용한다. 슬치기 깎기란 정발 하는데 많아 보이는 두발의 사이 사이나 떠올려서 추리거나 또는 깎아내서 불필요한 모발을 제거하는 것은 기법이다.

사용 후에는 윗날과 아랫날 사이에 끼워져 있는 모발을 제거하고, 분해하여 기름칠을 해주는 것이 좋다. 분해에는 일부 분해와 전체 분해가 있는데 수동식 편수기의 일부 분해는 날의 부분만을 분해하는 것으로 우선 암나사를 돌리고 보조나사, 슛나사, 밑날, 윗날의 순으로 풀고 역순으로 조립한다. 전동식의 일부 분해는 바리깡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양 검지 손가락을 날 뒷면의 나사부분에 대고 엄지



손가락으로 윗날을 밀어내서 분리한다. 조립할 때는 윗날의 돌출부분과 몸체의 홈에 끼우고 ‘딱’소리가 날 때 까지 눌러준다.

좋은 바리깡은 첫째, 중량감이 적고 자신의 손에 잘 맞으며 조작에 없어야 한다. 둘째, 윗날과 밑날의 맞물림 상태가 원활해야 하고 위에서 보았을 때 두 날이 똑바로 겹쳐져 있어야 한다. 셋째, 흠집·비틀림·부식이 없어야 하며, 전동식의 경우 모터의 소리가 일정하고 강도가 균일해야 한다.

4. 아이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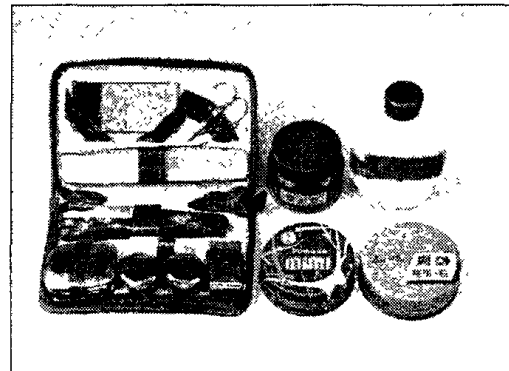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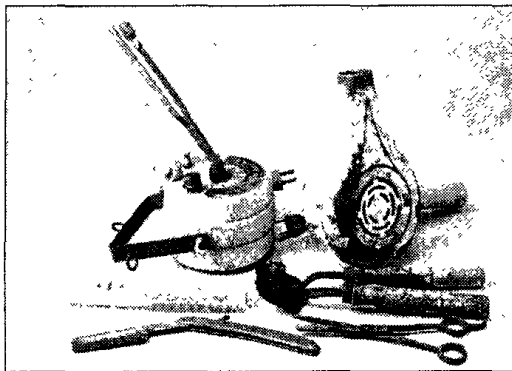
아이롱은 1875년에 프랑스의 마셀 그라도우(Marcel Gurateau:1852~1936년)가 ‘마셀 아이롱과 그 사용법’을 발표한데서부터 시작되어 처음에는 여성의 웨이브용으로 유럽에 보급된 것이다. 또 작은 소형의 아이롱이 것은 같은 20세기 초기에 유행된 ‘카이젤 수염’을 갖추기 위해서 많이 사용되었다고 한다. 1925년에 전기 아이롱이 발명되어 가열, 단열 온도의 조절이 쉽게 되어 아이롱 보급이 활발해졌다.⁴⁴⁾ 우리나라

44) 이용교재연구회, “종합이용이론”, 유신출판사, 1998, p.52.

미용실의 경우 아이롱을 본격적으로 퍼머에 활용한 것은 1990년대 초반이며 이발소는 이보다 다소 앞선다. 아이롱의 굵기, 사용법, 발열상태, 모양등에 따라 종류와 연출이 다양해진다.

5. 기타

가위나 레자의 무더진 날을 갈기 위한 연마기구와 커트를 위한 레이저, 제모를 위한 면도기 등이 있다. 특히 일시적으로 열을 주어 헤어스타일을 연출하는 드라이기의 경우 이·미용에서 모양과 열의 세기가 차이진다. 그 외에 남성 헤어스타일 연출을 위해서는 위의 기구나 기계외에도 퍼머약·염색약·스프레이·무스·젤·화장품 등의 소모적인 재료들이 필요하다.



[사진 7] 60년대 이용기구 (화열식아이롱, 드라이기, 레자, 포마드 외)⁴⁵⁾

45) 서울시립대 박물관 소장품

Ⅲ. 개화기 이후 남성 머리양식의 변천

1. 개화기에서 광복이전의 시대적 배경

1) 신분제의 붕괴

조선 후기(영조~순조)에서 개화기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신분제의 붕괴로 계층간의 갈등은 깊어졌고 정치에 대한 농민들의 불만이 천주교와 동학 등의 영향을 받아 반란으로 이어지는 혼란의 시기이다. 실학사상과 대동법의 실행 및 화폐유통은 상업자본을 형성하게 되었고, 그에 따라 부유한 상인이 생겨나면서 시민사회의 기본인 민본사상이 출현하게 되었다.⁴⁶⁾ 또한 부족한 재정을 충당할 목적으로 재물을 받고 노비를 면천시키는 납속책(納粟策)과 중앙관서의 공노비 6만 6000여명을 해방(순조1년, 1801) 시킨 사건 등은 중간계층의 신분 이동을 더욱 가속화 시켰다. 부농(富農)의 등장은 상대적으로 경제력이 약한 양반의 몰락을 의미했으며 당시의 상황을 박지원은 연암집 81권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동네에 한 부자가 가족끼리 의논하기를 양반은 아무리 가난하여도 그 위치는 높고 영광스럽다. 그런데 우리는 부자이면서도 늘 비천하여 감히 말을 탈수도 없고 양반만 보면 어쩔 줄 몰라 엉금엉금 기어서 뜰 밑에서 절하고 코가 땅에 닿도록 무릎으로 기다시피 한다. 지금 마을의 한 양반이 환곡을 갚지 못해 앞으로 양반을 보전하지 못할 지경에 빠졌다. 그런데 나는 양반을 살 능력이 있지 않은가? 마침내 그는 양반을 찾아가 환곡을 대신 갚아 주겠다고 청하였다. 양반은 크게 기뻐하며 받아들였다.’

신분제 동요에 영향을 준 또 다른 요인으로 천주교와 동학이 있다. 17세기 중국 베이징의 천주당을 방문한 우리나라 사신들에 의해 서학으로 소개된 천주교는 불안한 사회 분위기와 어려운 현실에 대한 불만과 신 앞에서 모두 평등하다는 교리로 인해 급속도로 전파 되었고, 18

46) 김종태, “한국화론” 일지사, 서울, 1989, p.198.

세기 후반에는 신앙으로 자리매김 하였다. 1860년 최제우가 창도가 동학 역시 기본 교리는 儒·佛·仙이며 내 몸에 한울님을 모셨다는 시천주(侍天主) 사상을 중심으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강조하였다. 제 3세 교주 의암 손병희가 1905년 12월 동학을 ‘천도교’로 개칭하였고 이후 농민운동, 여성운동, 민족해방운동 등을 전개하였다. 천주교와 동학의 기본 사상인 평등사상은 전통적인 신분사회에 반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이처럼 신분제의 붕괴는 수천 년 내려오던 왕실과 귀족 중심의 수직적인 복식문화권에서 서민을 위한 수평적인 복식문화권으로 전이(轉移)되어가는 과정을 의미하는 것이다.⁴⁷⁾ 엄격한 신분사회였던 시기에는 왕족·양반·서민·천민의 계급차가 뚜렷하여 일상적인 언어·의복·신발·장신구 심지어는 머리형에도 그 차이를 두었는데 신분제의 붕괴로 그 구분 역시 점차 적어지는 계기가 되었다.

2) 단발령

개화의 물결이 거세지자 을미사변 이후 내정개혁을 주도 했던 김홍집 내각은 조선 개국 504년(서기1895년, 고종32년) 11월 17일을 건양원년 1월 1일로하고 음력을 양력으로 개정하는 동시에 전국에 단발령을 내렸다. 야사(野史)의 기록에는 군부대신인 조희연등이 궁성에 대포를 겨누고 왜병들을 복병시켜 상에게 삭발을 강요했으며, 농상공부대신 정병하가 황제의 상투를 잘랐다했다. 그리고 위생적이고 짐무상 편한 단발을 성상폐하게옵서 술선수범했으니 국민은 이에 따라야 한다는 단발령을 내부대신 유길준 명의로 공포했다.⁴⁸⁾ 급조한 벼슬아치인 체두관(剃頭官)은 지방의 저작거리는 물론이요 가가호호(家家戶戶)방문하여 머리카락을 잘랐고, 사람들은 이를 피하기 위해 바깥출입을 삼가하였다. 1906년에는 당시의 내무대신 이지용(李址鎔)이 각 도에 군수삭발령(郡守削髮令)을 내려 군수·주사(主事) 등 관리들에게 삭발하도록 지시

47) 류송옥. “개화기 서양복식 유입의 충격과 수용”, 성균관대학교출판부, 1987, p.249.

48) 이규태 “남편 상투대신 목숨을 끊은 여인네” 조선일보 1999.4.22

하였다. 그러나 단발령은 단순히 상투를 잘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수 천 년의 나라 기틀을 흔들며 민족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일본의 공격이었다.



더욱이 민비시해로 자존심이 상했고 민심이 자극된 시기였기에 반발은 매우 거셌다. 유림의 거두인 면암 최익현은 ‘손발은 자를지언정 두발을 자를 수는 없다.(吾頭可斷 此髮不可斷)’고 단발에 불응했으며 ‘천년문물(千年文物)이 끊어지는’ 천지개벽으로 여겨 전국각지에서 유생과 지방민들

[사진 8] 체두관⁴⁹⁾

이 봉기하였다. 학부대신 이도재는 단군 이래 이어내린 질서가 상투에 있었다고 상투의 두발 외적 가치를 강조하고 단발령에 저항하여 벼슬을 버리고 낙향했다. 이충무공 후예인 이규백의 부인과 함양 선비 정순철의 부인은 각각 ‘오륜삼강은 머리털같이 끊어지고 내 영은 윤강을 따라 끊어지도다.’ ‘머리 깎는 스님은 남편도 아들도 없다’는 유서를 쓰고 자결하였다. 1933년에도 해주의 두 노인이 관청 앞에서 ‘단발을 거절하여 옛 의로움을 구한다(거권삭구구의)’는 유서를 써들고 동맹 자살을 했으니 단발령에 대한 반발이 매우 컸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일본과 중국도 우리나라의 상투적인 쯤마게와 변발이 1871년과 신해혁명(1911년)직후 삭발 되었으나 그들에게 두발은 큰 의미가 없었고, 그 변화 과정도 서서히 이뤄져 급작스레 일어난 우리보다 반발이 적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많은 혼란과 반발 속에서 단발령을 강행했던 주도세력은 누구이며 과연 그 진의(眞意)는 무엇이었는가?

일부에서는 단발령을 강행 한 쪽은 조선내각이 아니라 일본쪽이며 ‘위생과 편리함을 위해서’라는 것은 구호일 뿐, 실제로는 명치유신 이래 일본의 목표였고, 청일전쟁 이래 본격화 된 일본의 조선지배 전략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즉 조선의 조정과 백성의 갈등을 조장하여 소요사태를 유발한 뒤 자국 거류민 보호를 구실로 일본군을 증파하여 조선을 확고히 장악한다는 정치·군사적 전략, 일본 상품과 조선 미곡

49) “내가 장차 머리를 깎으리니 너희들도 모두 머리를 깎으라”, 월간 개벽, 2003.1

의 교환체제를 확대하여 자국 상인의 조선진출을 지원하다는 상업·무역상의 전략, 조선인의 문화적 자존심을 짓밟아 패배감을 조장한다는 심리적 전략 등이 바로 그것이다.⁵⁰⁾

당시 일본 언론의 보도내용이 이를 입증하는데 일례로 “報知新聞”에서는 ‘斷髮令一下……洋服, 時計, 帽子朝鮮文明一時躍進’(1896.2.2)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싣고 있다. 즉 단발령의 시행으로 일시에 번창하게 된 것은 일본인 이발점과 양복점, 구두와 모자, 기타 양복의 부속품 판매점이라는 것이다.

고종 황제가 아관파천후 단발령을 철회하였으나 서양식 교육기관에서 공부했던 이승만이나 신채호 등의 젊은 조선 지식인들은 새로운 세상에 적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으로 인식하여 스스로 상투를 잘랐다. 오늘 날 한국에서 상투 튼 사람의 모습을 찾아보기란 쉽지 않은데 이는 지난 100년을 경과하면서 위생과 편리함보다 유교적 명분을 찾는 사람들은 이미 거의가 사라져 버렸기 때문이다. 이렇게 머리모양이 바뀌게 된 중요한 분수령은 다름 아닌 100년 전의 단발령이다.⁵¹⁾

요 인	내 용	시대적 표현	머리형의 변화
사상적 요인	동학, 서학의 유입	만민평등사상 신분제의 붕괴	신분에 따른 머리양식의 차이가 없어짐
정치적 요인	갑신외척개혁 단발령, 군수삭발령	관복의 양장화	전통적인 수식대신 서양의 모자등이 성행
사회적 요인	대동법, 납속책 서양문물의 유입	부농의 등장 남녀평등사상	유학생들에 의해 외국 유행이 유입

[표 4] 개화기 남성머리 양식의 변천요인

2. 개화기에서 광복이전의 남성 머리형과 수식(首飾)

19C말은 신구(新舊)가 병행되는 과도기로 한편에서는 을미년 단발령의 영향을 받아 상투와 망건 대신 짧은 머리, 중머리 또는 하이카라 머

50) 이민주, “상투와 단발령” 사학지 제31권 단국사학회, 1998, pp.271~294.

51) 이민주, 위의 논문, pp.271~294.

리를 하였지만 유림의 촌로들은 집에서도 상투 없는 맨 머리를 보이지 않으려고 탕건이나 정자관을 착용하였다.



김옥균

홍영식

박영효

서광범

[사진 9] 개화기 남성의 헤어스타일⁵²⁾

이후 서울에는 관모점이 생겨 파나마모자, 맥고모자를 팔게 되고 중절모자도 생겨나서 전국적으로 퍼져나가 일대 유행을 보게 되었다. 그리하여 한복에 모자는 익숙하게 되었다.⁵³⁾

1) 땡기머리

관레이전의 미혼남성이 했던 전형적인 머리형으로 세 가닥을 한 가닥으로 합쳐서 길게 땡았는데, 일반적으로 길이는 대략 25cm전후이고 폭은 2~3cm가 보통이다. 조선말에 쓰이던 땡기의 고유어는 당기이며, 땡기의 종류는 그 모양이나 용도에 따라 쪽땡기·큰땡기·앞땡기·도투락땡기·말뚝땡기·제비부리땡기 등이 있다. 쪽땡기는 여성들이 쪽찐 머리를 할 때 사용하는데 젊은 사람을 적색을, 나이 든 사람은 자색을 선호했다. 큰땡기는 뒤핡기 또는 주렴(珠簾)이라고 부르며, 궁중이나 양반집에서 신부가 예장할 때에 족두리 밑에 달았던 땡기로 너비가 약 10cm이고 길이는 치마보다 다소 짧았으며 윗부분이 삼각형이다. 비단 재질과 금박 무늬로 화려함을 더했으며 오늘날 신부의 폐백 복장에도 그 흔적이 남아있다.

큰땡기와 함께 혼례때 사용했던 앞땡기는 드림땡기 또는 앞줄이라고

52) 한국 양복 10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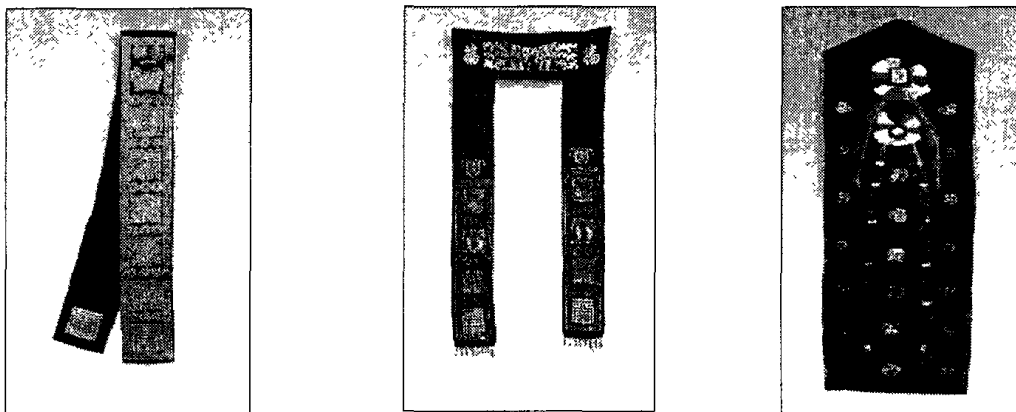
53) 백영자외, “한국의 복식문화”, 서울 경춘사, 1993, p.511.

도 불리며 예복 착용시 큰 비녀의 양쪽 끝에 감아서 사용한다. 양끝에 붉은 천을 물리고 구슬을 여러 줄 달아주는 것이 특징이다. 도투락땡기는 큰땡기와 유사하나 크기가 작고 끈을 달아 어린 아이들의 뒤통수에 매달아 주었다. 말뚝땡기는 도투락땡기에서 제비부리땡기로 넘어가는 중간 연령대의 아동용으로 땡기 끝자락이 뭉툭한 일자형이다. 제비부리땡기는 미혼용이며 남자는 흑색, 여자는 적색을 사용했고 연령에 따라 그 크기에 차이가 있었다.

‘형님 땡기 광사주요 나의 땡기 호방주라,
형님 땡기 석자땡기 나의 땡기 두자 땡기.....’⁵⁴⁾

경상도 안동 지역에 땡기를 주제로 한 구전(口傳) 민요의 내용이 이를 뒷받침해준다. 그러나 상중(喪中)에는 남녀를 가리지 않고 모두 백색포(白色布)를 사용했다.

옛날에는 땡기를 풀고 상투를 틀어야만 사회적으로 어른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상투 트는 것을 기념하는 ‘땡기풀이’를 하였다. 땡기풀이 풍습은 ‘아이로서 관례(冠禮)를 지낼 때 동무들에게 한 톱 내는 일’로 축하연의 의미이다.



[사진 10] 각종 땡기(말뚝땡기, 앞땡기, 도투락땡기-좌로부터)⁵⁵⁾

2) 상투

‘상투’의 어원이 두 가지 있는데 첫째는 영어의 ‘세인트(saint)’, 독일

54) 안동시청의 무형문화유산중 민요 편에서 발췌한 ‘땡기노래’

55)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어의 '장크트(Sankt)' 라틴어계의 '산타(Santa)'와 같은 의미에서 비롯되었다는 설이다. 아주 먼 옛 날에 '상투'는 높은 지위를 뜻했고, 지배 계급의 성인 남자와 무사의 상징이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뜻을 갖고 있던 아리아어 어휘가 영어에서는 '성스러운'이라는 말인 '세인트(saint)'로, 한국어에서는 머리 모양을 나타내는 말인 '상투'로 되었다고 볼 수 있다.⁵⁶⁾ 둘째는 상두(上頭)가 본딴말로 머리 위에 위치하는 것이라는 주장이다. 여하튼 우리 선조들의 두발형태로 상투가 정착된 시기는 불명확하고 다만 복식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문헌이나 고분들의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삼국시대 이전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주장한다.⁵⁷⁾ 고려시대에는 '고려도경'에 “왕 이하 서민에 이르기까지 모두 관(冠), 건(巾), 복두(幘頭)를 썼다”는 기록과 “머리를 묶었다(束髮)”는 기록이 보인다. 이러한 모양은 조선시대로 이어져 초상화나 풍속화를 통해 보듯 계층을 막론하고 상투를 틀었음을 알 수 있다.⁵⁸⁾ 시대에 따라 모발의 꼬임정도나 크기가 조금씩 변했지만 조선시대의 상투를 일반적인 남성의 머리형으로 인식하게 되었다. 앞에 기술한바와 같이 상투는 혼례의 여부보다 성인이 되었음을 알리는 통과 의식의 의미가 더 많았기 때문에 상투를 틀고 쪽을 지는 순간부터 어린이 아닌 어른으로 대접 받게 된다. 말씨의 경우 이전의 낮춤 말씨인 '해라'체에서 보통말씨인 '하게'체로 바뀌게 되고, 이름 역시 아명(兒名) 대신 자(字)나 당호(堂號)로 부르며, 어른께 절(拜)을 하면 답배(答拜)를 받게 된다.



상투의 역사가 깊은 만큼 관련된 속담과 고어들도 많이 있는데 그 중 '상투바람'이란 상투 [사진 11] 상투와 땀기가 있는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나선 차림새로 황급함을 뜻하며, '북상투'나 '주먹상투'는 머리를 숙지 않고 아무렇게나 막 끌어올린 불

56) 오광길, “역사의 키워드 아리랑과 알과벳”, 한국순환학회, 씨와 알, 2002.

57) 유희경, “한국복식사연구”, 이화여대 출판부, 1977, pp.100~105.

58) 이민주, 앞의 논문, pp.271~294.

품없는 상투를 뜻한다. ‘상투 위에 올라앉다’란 뜻은 상대를 업신여기어 깔고 앉는 태도를, ‘중의 상투’란 매우 얻기 어려운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상류층 남성이 상투를 틀 때는 먼저 빗살이 엉성한 얼레빗으로 빗고 다시 고운빗살로 매끈하게 빗어준다. 정수리의 백호부분으로 모아 상투를 만들어 준 다음 풀려지지 않게 동곳으로 꽂아주고 망건으로 한번 더 고정시켜준다. 흘러나온 머리카락이 있으면 ‘살쩍밀이’로 망건 속으로 넣어주고 그 위에 상투관, 탕건, 정자관, 흑립관 등 각종의 관(冠)을 착용하여 위엄을 더하였다. 반면 하류층의 남성은 일절의 수식 없이 상투만 엮었는데 이를 민상투 또는 상투의 속어인 ‘고작’이라고 했다.

3) 하이카라머리와 중머리

하이카라의 어원은 High classe의 의미인 ‘ハイクラス’도 있지만, High collar로 당시 일본 상류층이 입었던 서양의상이 목깃이 높은 형이었기 때문에 이를 ‘ハイカラ-’라 한데서 유래되었다는 주장이 지배적이다. 여하튼 하이카라머리는 신문물(新文物)의 대표적인 산물로 여겨지게 되었고, 민족의 발전을 위해 신문물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믿었던 조선의 지식인들은 점차 자의적(恣意的)으로 상투를 자르게 되었다.

닥터 에비슨이 가위로 나의 머리를 잘랐다. 그 때에 몇몇 외국사람들이 동정 어린 눈으로 그것을 지켜보았는데, 머리카락이 잘리고 상투가 내 앞에 떨어 질 때에 나는 짜늘한 전율을 느꼈다. 그리고 나는 병원에 딸려 있는 작은 방에서 이를 밤을 지냈다..... 내가 나타나자 어머니는 무척 놀라고 자식이 죽거나 한 것처럼 통곡을 하셨다.

이 글은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 단발하였던 모습을 그의 자서전에 기록한 내용이다. 그 외 안동 협동학교의 설립자인 유인식, 언론인이자 독립운동가인 단재 신채호와 같은 개화 사상가들이 연이어 단발을 하였다. 당시의 지식인들은 항일운동과 민족주의 운동을 하는 집단과 일본에 대한 저항 의지를 상실하고 유희(遊戱)를 즐기는 집단으로 구분되었다. 후자를 독일어의 쓰레기 혹은 폐물을 뜻하는 단어 Lumpen에서 유래한 룸펜 지식인이라고 칭하게 되었다. 대다수 사람들은 일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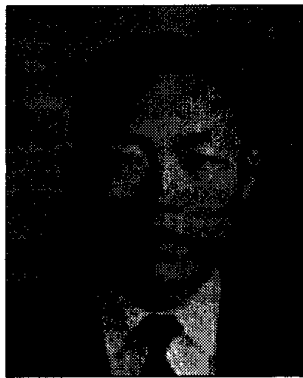
대한 반발로 림펜 지식인들의 생활을 비판했으며 이는 곧 당시 대다수의 남성들이 하였던 두발형태인 하이카라머리에 까지 영향을 주었다.

“ 낙동강 칠백 리 공굴 놓고
하이카라 잡놈이 왕래한다.” 59)

“ 아리랑 통치마 옆 구멍 뚫고
하이카라 손목이 들날 날랑” 60)

“ 이 동리 인구는 주러만 가고
하이카라 멋쟁이는 느러만 가네.” 61)

위의 민요 속에서 ‘하이카라’는 일제의 강력한 정치통제와 교활한 문화말살정책에 대한 저항의 의미를 자조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그 무렵 상투의 유무는 사상의 신구(新舊)를 가늠할 수 있는 척도이기도 했다. 상투를 틀고 있으면 수구파, 친러파가 아니면 유학자였고, 하이카라 머리에 도리우치를 얹으면 개화파, 친일파, 신학문을 닦는 사람들로 구분되었다. 62)



[사진 12] 하이카라머리와 중머리

하이카라머리가 고도의 기술을 갖춘 이용사가 가위로 양 옆과 뒤를

59) 고정옥, ‘조선민요연구’, 수선사, 1949, p.190.

60) 남해 아리랑 별곡, 매일신보, 1930.10.23.

61) 이경로, ‘농촌아리랑’, 조선일보, 1930.3.9

62) 박상근, 앞의 책,

치켜 꺾고 윗머리가 10~15cm정도가 되도록 자른 스타일이라면, 특별한 기술 없이 모두 밀었던 까까 머리(박박 머리)인 중머리는 대중에게 인기가 있었다. 특히 일제의 핍박이 극에 달했던 종전(終戰)무렵에는 정신무장을 빌미로 하이카라머리 대신 박박머리를 강요하기도 했다. 이는 1982년 두발자율화 이전까지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대표적인 머리형으로 이어져왔다.

3. 광복 이후의 시대적 배경과 남성 머리형

1) 1950년대

6.25의 발생으로 인한 가치관의 혼란과 경제의 파탄이 가중되는 시기였다. 전후(戰後)부터 이승만 자유당정권의 파행적인 정치로 정치·경제·사회·문화 제반에 걸쳐 부정·부패·부조리한 현상이 만연했으며 국민들은 정치로부터 소외되고 국내의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다. 또한 미군들에 의하여 제한 없이, 그리고 일방적으로 수입된 미국의 대중문화는 전통문화의 대립과 선택적인 흡수라는 문화수용 과정을 생략한 채 고급 아메리카니즘인 양 수용되었으며 사회, 문화 각 부분에 심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⁶³⁾ 미군을 비롯한 UN군의 주둔은 직업여성들의 저급 문화를 만들어냈고, 외국에서 들여온 잡지나 영화 속의 배우들의 차림이 유행되게 하였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초의 TV방송국인 'HLKZ-TV'(대한방송주식회사)가 종로 네거리 RCA 빌딩 안에서 1956년 5월 12일에 개국되었다. 이 방송사는 59년 2월에 화재로 소실되었으나, 그 방송경험과 인적자원을 바탕으로 1961년 12월 국영 TV방송국인 KBS, 1964년 TBC의 전신인 동양 TV 방송국, 1969년 MBC TV방송국이 개국하였다. 이런 영향으로 연예인을 모방하는 일이 많아졌고, 연예인은 유행을 주도하는 세력으로 급부상하게 되었다.

50년대 초 남성들의 패션은 군용담요로 만든 외투와, 물들인 군복이 일상복일 만큼 구제품이 보편화되었고, 신문 등에서도 구제품의 재활용

63) 백영자, “한국생활문화100년” ‘장신구의 변천’ 장원출판사, 1995. pp169~236,

방법을 연이어 소개하였다. 젊은 남성들에겐 군복 밑단을 좁게 고친 '홀테바지'가, 배급받은 낡은 옷을 뒤집어 입는 '우라카이 패션'이 유행되었다. 전쟁으로 인해 옷의 선택 기준이 '아름답고 기능성 있는 것'보다는 '오래 입을 수 있을 것'으로 바뀌자 '거미줄보다 가늘고 강철보다 강하면서 값싼 옷감'인 나일론이 소개되었다. 54년 나일론을 태창방직에서 생산하기 전까지 미군에서 흘러나온 나일론 소재의 낙하산이 주된 공급처였다. 실제로 50년대 초 패션리더격인 속칭 양공주들은 속이 흰히 비치는 낙하산지로 만든 블라우스를 입기도 했다. 이들의 지나치게 화려한 화장과 옷차림은 거센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새로운 복식과 미용문화를 유입하여 보급하는데 전기가 된 것 또한 사실이다. 50년대의 또 다른 남성의 패션유형은 일본에서 들여온 값비싼 '교토 비로도'로 만든 '두 줄도 단추가 달린 파블'상의와 '올백 머리에 선글라스'를 낀 차림이었다. 당시 멋쟁이를 '마카오 신사'라고 했는데, 이는 양복지의 국내 생산이 힘들었고 따라서 미군 부대나 홍콩 또는 마카오에서 밀수된 제품으로 양복을 해 입었기 때문이다.



[사진 13] 50년대 유행 한 남성스타일
(좌-한국양복100년사, 우-사진으로 보는 해방 30년에서 발췌)

55년 7월 8일 남녀 모두 의무적으로 재건복(신생활복)을 입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양장(洋裝)이 보다 일상화 되었다. 이는 활동을 간편하게 하고 손질하는 시간을 절약하여 경제적인 이점을 살리기 위한 취지였으나, 재건복이 일본 국민복과 미국 전투복을 혼합한 형태에 불과하다는 비난 속에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군사정권에서도 '의상 간

소화 운동'을 펼쳤는데 농촌에서는 사람들을 모아 놓고 짧은치마 입기 운동을 벌였다. 타이트, 혹은 넓은 플레어 치마 대신 '셰미'라 불리는 적당한 치마폭이 유행했다. 남성들도 '재건복'으로 통칭된 작업복 스타일 잠바와 콤비를 입고 다녔다.⁶⁴⁾ 양장의 착용은 머리형의 서구화를 촉진시켰고, 한복은 점차 의례복으로 되었다.

1957년 제일모직에서 수입품의 3분의1 가격대 모직 원단 신사복이 나오면서 보통 남자들도 멋을 갖추기 시작했고 그해 반도호텔에서 최초의 패션쇼가 성황리에 열리게 되었다. 이는 1881년 일본에 갔던 신사유람단이 요코하마(橫濱) 양복점에서 처음으로 양복을 해 입었고, 1889년 국내 양복점의 효시인 하마다(濱田)⁶⁵⁾ 양복점의 개업 한 이후 한국 남성복에서 역사적인 일이다.



[사진 14] 50년대 남성 헤어스타일⁶⁶⁾

정부의 '양복입기권장'과 양복의 '국산품제조' 및 연이은 'TV와 영화의 보급'은 생활양식과 패션 및 헤어스타일에도 많은 영향을 주게 되었다. 일례로 여성의 경우 50년대 영화 '로마의 휴일'의 오드리헵번의 헤어스타일이나, '자유부인'에서 나온 벨벳 치마와 저고리의 인기는 선풍적이었다. 이 시기 남성의 머리형은 전후(戰後)이므로 일본의 잔재와 UN군의 영향으로 중머리와 하이카라의 중간형인 '모판머리'가 대표적이었다.

64) 조선일보, '의생활...몸빼에서 미니 거쳐 배꼽티까지', 1998.8.11.

65) 현재 서울 광화문 우체국 근처에서 궁중양복을 주문 납품했다.

66) 전쟁중의 지방장관 회의장면, 국정홍보처, 50.10.30.

2) 1960년대

1960년대 초 5·16군사쿠데타로 권력을 장악한 박정희 정권은 60년대 말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 강행, 교련제 실시 등의 강압적인 정책이 있기 전까지 경제개발 5개년계획과 새마을운동을 추진하면서 비교적 안정적인 경제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 전통적인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의 전환되는 시기이며, 온 국민의 노력으로 사회가 자리를 잡아가는 분위가 조성되었다.

대표적인 머리형은 상고머리였는데 남성형과 여성형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남성의 경우 하이카라의 연장선에서 바리깡없이 가위로만 자른 긴 스포츠형이라면, 여성의 경우 목덜미와 귀 옆선만 돌려서 짧게 치는 형이었다. 상고머리로 자른 남성들의 머리모양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데, 하나는 가르마를 타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가르마 없이 뒤로 완전히 빗어 넘기는 소위 「올빽」 형이 있다. 가르마를 탈 경우에는 왼쪽, 오른쪽, 중간의 세 가지 중 하나를 택하는데 젊은 층은 대개 가르마를 왼쪽으로 하고 중년층인 경우는 한가운데로 했다. 가르마 없이 완전히 뒤로 빗어 넘기는 경우는 1950년대 말 중년층 이상에게 유행이 되었는데 이 모습 또한 별다른 유행 없이 계속되어 온다.⁶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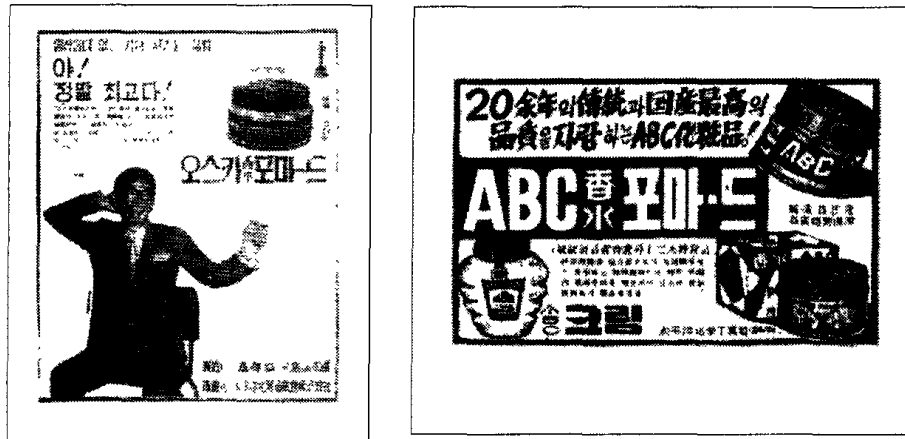


[사진 15] 60년대 남성 헤어스타일⁶⁸⁾

이처럼 뒤로 빗어 넘기는 형의 스타일을 연출하기 위해서 두발 화장품인 ‘포마드’가 필수적으로 필요했고, 이 시기를 ‘포마드 전성시대’라고 부를 만큼 인기가 절정이었다.

67) 서울시 역사편찬위 “서울육백년사”

68) 국제방송국 대북방송 광경, 국정홍보처, 1966.3.1.



[사진 16] 60년대 포마드 광고⁶⁹⁾

물론 광복이전의 신문에 포마드 광고가 게재된 것으로 보아 그 사용은 훨씬 이전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광복 전 군국주의로 접어든 일본은 그 식민지이던 한국의 모든 남자에게 뽀뽀 머리를 강요하였고, 머리를 기르는 것을 금지시켰다. 이른바 ‘하이카라’머리는 사라졌고 모두들 군인머리를 하고 있었다. 해방은 머리를 기를 수 있는 자유를 주었다. 그리고 군복 같던 옷차림은 사라지고 양복으로 바뀌어 입게 되면서 새로운 머릿기름 시장이 나타났고 1930년대까지 사용하던 포마드 시장이 되살아난 것이다. 태평양의 ABC 포마드와 오스카 향수 포마드, 한국화장품의 단학 포마드와 백마 포마드, 경마 포마드, 대도약품의 유가 포마드, 아주 약품의 승마 포마드, 성미 주리아의 MG7 포마드 등이 속속 등장⁷⁰⁾했고 포마드의 주원료인 피마자유가 월간 300톤 이상씩 소비되기도 했다.

60년대 말에는 맘보, 차차차, 지루박 등의 라틴 아메리카리듬과 함께 통이 좁고 몸에 맞는 맘보바지가 유행하였고 더불어 젊은 여성은 콜드퍼머가 남성은 맘보머리가 성행하였다. 맘보머리는 아이롱을 사용해서 앞머리에 휘감아 치는 웨이브인 ‘나비’를 넣어주는 스타일이다. 당시 여성들도 아이롱을 사용하였는데 남성용 아이롱은 원형이 아니라 좁고 납작한 일자형으로 된 것이 특징이다.

69) 신인섭, ‘광고로 보는 한국화장의 문화사’ 서울 김영사, 2002, pp.50~88.

70) 신인섭, 앞의 책

3) 1970년대

60년대 후반의 에너지 파동, 베트남 전쟁, 세계적 공황 등을 배경으로 미국 서부 해안에서 시작 된 히피(Hippies)문화는 전 세계적으로 확산 되었다. 이들 히피집단의 최대 관심사는 현대문명의 이기와 물질 만능에 대한 저항과 반전운동이었다. 히피는 획일적 주류 패션에 대항하여 청바지를 많이 착용하였고 남녀 모두 긴 머리에 머리띠를 매고, 맨발로 자연 회귀를 보여 주었다.⁷¹⁾ 이런 히피문화의 영향을 받아 우리나라에서도 장발, 미니스커트, 진(Jean), 통기타, 생맥주 등이 유행하게 되었다. 특히 1967년 가수 윤복희가 미국 공연을 마치고 귀국하면서 입고 온 우리나라 최초의 미니스커트는 이후 무릎 위 20cm이상 올라갈 만큼 성행하였고 핫팬츠 등장에 영향을 주었다.

그러나 당시의 이런 유행을 유신정부가 군부정치에 대한 반항의 표출로 인식하면서 또 다른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되었다. 결국 정부는 경범죄 처벌법(법령 제 2504호)이란 명목 하에 장발과 미니스커트를 규제하게 되었고, 1972년에는 유흥업소도 자체정화를 이유로 장발족의 출입을 금지시켰다. 여기서 ‘장발’이란 남자의 옆 머리카락이 귀를 덮을 정도를 의미하는데 이를 위반해 적발되면 경찰에 연행, 조서를 받은 다음 즉결 재판소에 넘겨져 29일 이내의 구류, 2백원에서 3천원 사이의 과태료, 2천원에서 5천원 사이의 벌금 등 세 가지 처분 중 한 가지를 받았다.⁷²⁾ 당시 서울시의 장발단속 현황을 보면 1973년 12,870건, 1974년 4,030건, 1975년 2,456건, 1976년 6,405건, 1977년 4,166건, 1978년 16,340건이 단속되었다. 1973년 3월에는 무릎 위 17cm이상 올라가는 미니스커트를 과다노출로 규정해서 경범죄처벌법에 포함시켰으며 스커트길이가 무릎 위 몇 cm인가를 단속원들이 자로 잰었다. 69년 8월에 무릎 위 30cm의 초미니를 입고 거리를 걷던 여성이 25일간의 구류처분을 받았고, 70년에는 미니 차림의 여성들이 즉결심판에 회부되었다는 것으로 보아 당시의 처벌기준과 강도를 짐작할 수 있다.

71) 유송옥의 “복식문화” 서울 교문사, 1996, p.287

72) 김소현외, “서울의 의생활 변천”, 서울 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사진 17]
미니스커트 길이
단속⁷³⁾

[사진 18] ▶
장발단속⁷⁴⁾



여성의 사회진출과 남녀 교육의 평등화로 성 역할의 차이가 좁혀지면서 패션과 미용에서도 성의 차이가 적은 유니섹스모드가 유행되기 시작하였다. 점차 이발소에서 머리를 다듬던 여성들이 좀 더 다양한 스타일과 유행에 민감한 미용실을 선호하게 되었고, 젊음 남성들도 차츰 미용실을 찾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장발의 유행은 이용업계 쇠퇴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일부 퇴폐업소가 나타나게 되었다.

4) 1980년대

미용계는 82년에 일본의 잔재인 교복과 두발규제가 자유화되면서 획일적인 남학생의 까까머리와 여학생의 단발이 풀리면서 미적안목(美的眼目)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70년 말부터 생산되기 시작한 컬러텔레비전이 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보급 되면서 메이크업계가 일대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패션계는 섬유산업이 호황을 보이면서 제일모직, LG 패션, 코오롱패션 등 대기업이 기성복 시장에 진출하였고, 81년 나이키운동화의 출현으로 스포츠웨어가 붐을 이뤘으며, 유행의 중심이 디자이너 부띠끄에서 기성복으로 이동하면서 패션의 대중화가 이뤄진 시기이다. 또한 정부는 국제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견문을 넓히고 자기발전을 이룩하며 나아가 국가의 이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89년 1월 1일부터 국민의 해외여행과 해외송금을 자유화시

73) '사진으로 보는 한국 100년', p745,

74) 시련과 영광의 민족사, p521,

켰다. 이는 86 아시안게임과 88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와 더불어 해외문화의 유입을 활발하게 만든 요인이기도 하다. 당시 세계적인 패션 문화는 1970년대 후반 영국의 젊은 노동자들로부터 시작 된 저항적 하위문화인 펑크(Punks)이다. 펑크는 속어로 ‘재미없는 것, 불량소년 또는 소녀, 풋내기’란 의미인데, 히피가 가진 낙천적이고 유토피아적인 꿈의 그늘 속에서 성장한 펑크는 풍요에 대한 약속과 실업이 만연한 현실의 절망적 상황 사이의 갈등을 표현하려고 했다. 펑크족 청소년들은 검정 가죽 재킷, 찢어진 청바지, 요란한 머리모양과 색깔뿐만 아니라 속박과 구속의 상징하는 체인과 안전핀을 신체에 꽂는 등 충격적이고 의도적으로 추한 표현을 통해, 미래가 없음(No Future)을 상징하는 펑크스타일을 추구하였다.⁷⁵⁾ 끝이 뾰족하고 부풀어져 있는 머리카, 모히칸족 스타일이 대표적인 헤어 스타일이다.

국내의 경우 핀클 퍼머와 롤스트레이트가 유행되었고, 전기 바리칸의 보급으로 싱글링 컷트형을 주로 하였다. 또한 스프레이와 무스, 젤 등의 정발제품이 보급되면서 다소 인위적인 듯한 느낌의 ‘닭벼슬머리’, ‘자존심머리’등으로 많이 손질했다.

5) 1990년대

90년대 들어서 랩송과 NBA가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층에 유행하였고 또한 국내에 ‘서태지와 아이들’이 힙합 패션을 들여온 것을 시작으로 하여 우상에 대한 모방심리 및 반항의식, 집단 동조 의식과 부합된 힙합 유행이 급속도로 번져 나갔다. 기존 세대들에게는 미국 빈민가의 흑인들 옷차림으로 낙인찍힌 ‘두 다리가 들어가도 남는 바지가랑이에 발등 위 20센티는 족히 주름이 잡힌 힙합 바지, 헤엄을 쳐도 될 커다란 후드 티셔츠, 또는 쥘티 차림에 머리 염색은 기본’인 스타일을 하였다. 청소년이 연예인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면, 성인 남성의 경우는 ‘국민소득 1만 불 시대’인 90대 중반에 등장한 남성잡지의 영향이 컸다. 이전의 남성잡지는 기성세대들을 위한 신문사에서 발행한 시사 잡지들(신동아, 월간 조선 등)과 자동차, 골프, 등산 등의 취미생활을 위한 잡지

75) 유송옥, 앞의 책, p.291.

가 대부분이었다. 1964년 창간 된 ‘주간한국’에 이어 주간중앙·선데이서울·주간조선·주간경향·주간여성 등이 계속 창간되었다. 초기에는 종합잡지로 출발하였으나, 결국 ‘사건과 실화’ 류의 황색잡지로 변하게 되었다. 남성전용의 읽을거리가 마땅치 않던 시기, 성에 대한 보수적이고 폐쇄적인 사회에서 성적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그러던 것이 95년 10월 에스콰이어 한국판의 창간을 계기로 Him·Swing·GG한국판·The Man이 등장하게 되었고, 이는 ‘보는 잡지’에서 ‘읽는 잡지’로 전환됨을 의미했다. 물론 IMF를 맞으면서 남성잡지계가 순간 위축된 적도 있었으나 2001년 3월 GQ, 2002년 10월 Masim의 창간으로 더욱 활성화 되었다. 잡지의 내용 역시 미용, 패션, 경제, 시사, 이성 등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남성들로 하여금 미용에 보다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켜주게 되었다.



[사진 19] 남성잡지

98년에는 이발소와 미용실의 중간형태인 남성전용 미용실 ‘블루클럽’이 등장하였고 이후 Mr바리깡(’98), 히즈모(’99), 나이스 가이(’01) 등이 연이어 문을 열었다.

6) 2000년대 이후

국내 남성화장품 시장은 아직도 구매자와 소비자가 이원화 된 대표적인 소비시장이다. 사용하는 남성에 비해 제품을 구입하는 여성의 비율이 60~70%대를 점할 만큼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실시한 한 소비자 조사결과에 의하면 국내 남성 화장품 시장은 여성의 구매력이 남성보다 6.7대 3.3으로⁷⁶⁾ 조사되었다. 이는 불과 몇 년 전과 매우 다른 현상으로 받아들여진다. 이런 변화요인 중에 하나는 새로운 소비문화로 등장한 사이버 쇼핑몰과 홈쇼핑이 남성소비를 자극하

76) 미용신문CNN. 2002.10.23

는 또 다른 촉매제가 된 것⁷⁷⁾이다. 일부 조사에서 화장품 구매 시 ‘자기 것’을 자기가 구매하는 성향이 CJ 홈쇼핑의 경우 2001년 10월 남성 고객 주문이 2000년 10월의 130억원이었던 것에 비해 460% 이상 늘어난 약 600억원에 달했다고 한다. 또한 모성형외과에서 1996년부터 2001년 눈 밑 지방 제거 수술을 받은 1300명을 조사한 결과 96년 남녀 성 비율이 10대 90으로 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으나 2001년에는 30대 70으로 남자의 시술비율이 높아졌다⁷⁸⁾는 발표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변화되는 남성들의 라이프 스타일로 인해 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욕구(Needs)을 충족시킬 요소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좋은 예이다.



[사진 20] 2001년 남성화장품 광고

요즘의 남성들은 강한 웨이브파마에서 긴 스트레이트파마까지 개성껏 연출하고 있으며,形形色색의 색상으로 염색을 한다. TV에서도 기초 화장품보다 한술 더 떠 색조화장품 광고를 버젓이 하고 있으며, 귀걸이는 물론이고 문신과 피어싱 등의 Body Art까지도 하고 다닌다. 흔히 패션계에서 요즘의 유행을 No 3S라고도 하는데 형(Style)과 계절(Season)과 성별(Sex)의 구분이 모호해졌다는 의미이다. 이·미용계 역시 특정한 유행이 없다는 것이 요즘의 유행으로 보여진다.

77) 주간 의정부 내일신문, 2002.12.13.

78) 타임필 성형외과 배영재원장

연대	시대적 배경	대표적 머리형	재현 여부
50년대	· 외세문물이 공존하며 가치관이 혼란한 시기 · 전후(戰後)의 경제적 압박을 받음. · 의상간소화운동등은 양장착용을 활성화 함 · TV방송국개국('56), 최초의 남성복 패션쇼('57) 등	모판머리	○
60년대	· 5.16 혁명('61), 경제개발5개년계획('62) ·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하는 시기 · 포마드사용과 국내 향장업체의 발달 · 라틴댄스 열풍속에 맘보춤, 맘보바지, 맘보머리가 유행함.	상고머리 맘보머리	○ ○
70년대	· 세계적인 공황, 베트남 전쟁 → 히피문화를 형성 → 진(Jean), 장발 등 유행 → 이용업 쇠퇴 · 장발을 유신정권에 대한 반향으로 여기고 정부차원에서 장발을 단속함(경범죄 적용)	장발	
80년대	· 기성복 대량생산과 컬러TV보급으로 패션의 대중화 · 세계적인 펑크문화의 유입 · 교복과 두발('82), 해외여행('89) 규제 자유 · 86아시안게임, 88올림픽등으로 유행의 국제화 · 전기 바리깡, 스프레이 등이 유행	펑크형	○
90년대	· 패션남성잡지가 등장하고 TV 등의 대중매체에서 남성의 미용을 적극적으로 홍보함 · '서태지와 아이들'이 대유행(염색머리, 힙합 등) · 남성전용미용실 '블루클럽'이 등장('98)	힙합머리 아이롱 퍼머	○ ○
00년대 후	· 인터넷과 홈쇼핑등의 등장으로 미용용품 구매자중 남성의 비율이 증가함. · 획일적인 유행보다 개인의 정체성에 맞는 스타일을 추구	드래드 머리	○

[표 5] 광복이후 남성의 머리양식 변천요인

IV. 개화기이후 남성 머리양식의 재현

1. 상투

상투가 얹어지는 정수리 부분을 주기적으로 완전 삭발해야 하는데 이는 머리길이가 길고 무거우면 상투가 쉽게 풀릴 수 있고, 미관상 너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상투의 위치를 쉽게 파악할 수 있고, 체열이 잘 발산되어 위생과 관리가 용이하도록 하기 이유도 있다. 이렇게 밀어내는 것을 ‘백호(배코)친다’고 표현하는데 대략 그 반경은 7~8cm 가량이다. 개화기무렵의 이발소 광고에 ‘배코친다’는 표현이 적혀있는 것으로 보아 상당기간 행해져왔던 것으로 여겨진다. 국어사전중에 우리 고유어로 ‘펴널’이 있는데 이는 상투를 틀 때 기둥이 되어지는 맨 아랫머리를 의미한다.



[사진 21] 상투를 튼 남자 다섯명⁷⁹⁾



[사진 22] 갓을 쓴 글방도령과 총각⁸⁰⁾

79) 국립중앙박물관소장(‘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100년 사진보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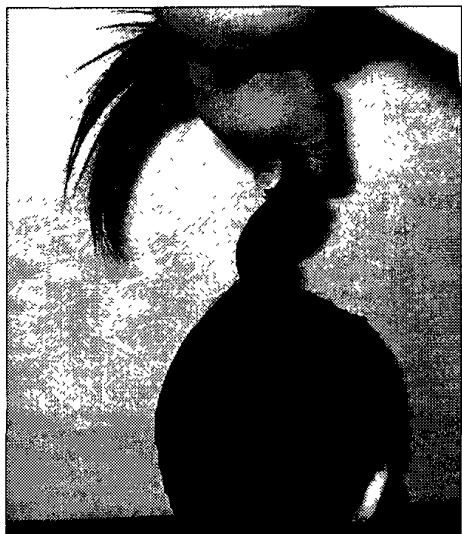
80) 조선총독부 발간 생활실태보고서(‘제주도청 홈페이지 제주100년 사진보기’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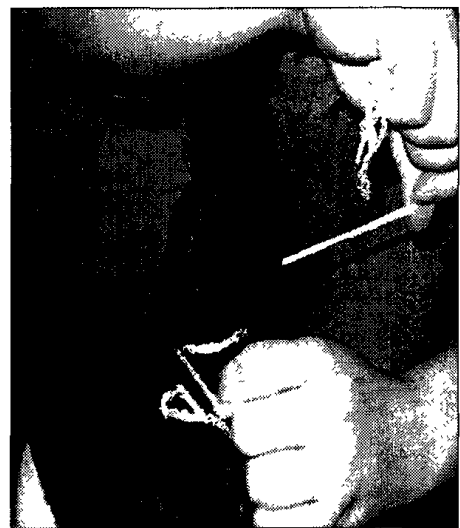
(1) 상투가 엮어질 정수리에 칼로 반경 7~8cm의 백호친다.



(2) 전두부와 후두부의 모발을 백호에 곱게 모아 빗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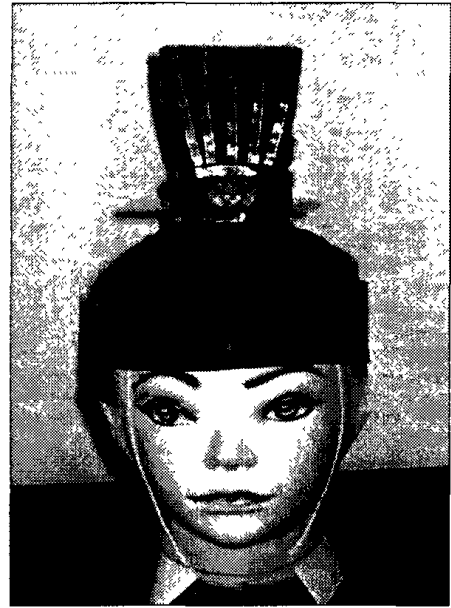
(3)(2)를 꼬아 두피쪽에서 4~5cm되는 기둥(띠널)을 세워준다.



(4) 남은 모발로 (3)의 기둥을 감고 끈으로 돌려 묶는다. (또는 동곳을 사용)



(5) 민상투의 완성형(아무런
장식을 하지 않은 상태)



(6) 망건과 상투관 착용



▲ 탕건착용



▲ 흑립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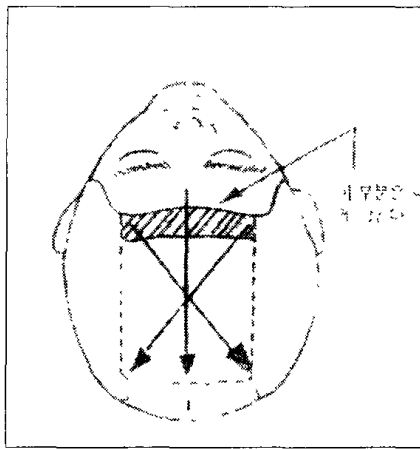


◀ 사모착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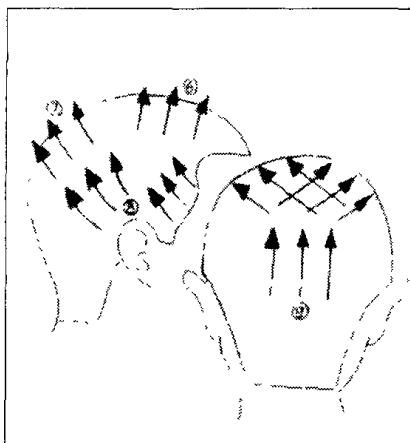
2. 모판머리

전체적으로 짧게 밀었으나 앞머리만 불균형적으로 길게 남겨두는 스타일로 지금의 해병머리와 유사하다.⁸¹⁾ 모판머리는 강압적이었던 일제의 잔재와 새마을 운동의 경직된 사회 분위기가 반영된 듯하다.

50년대는 전기 바리깡이 수입되지 않은 시기이므로 무동력(無動力)의 수동식 바리깡인 양수기와 편수기를 사용했으나 본 재현은 입수가 곤란하여 전기 바리깡으로 대신하였다.



(1) 탑(TOP)의 U블럭을 4~5cm길이로 자르는데 웨이스라인쪽이 그림처럼 좀 더 길어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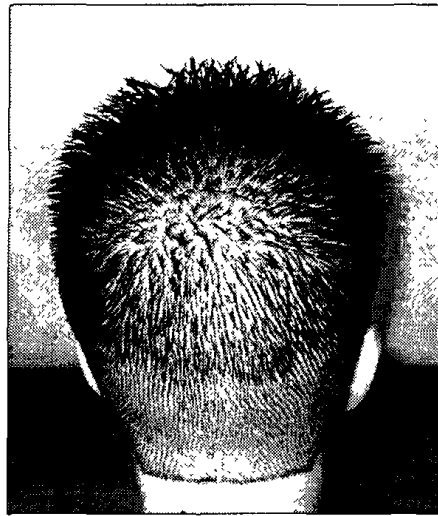


(2) 왼쪽 사이드(Side)의 모발을 (1)의 길이에 맞춰 바리깡으로 올려쳐준다. 오른쪽 사이드와 뒷부분도 그림을 참고하여 커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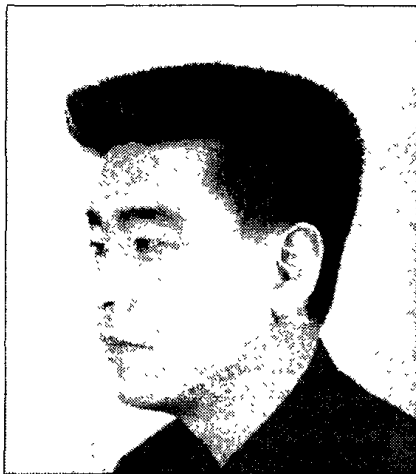
81) 김수원(잠실 롯데호텔 이용원원장, 국제기능올림픽 이용직종장)의 구술기록



(3) 모판머리 완성형 - 옆



(4) 모판머리 완성형 - 뒤



[사진 23]

모판머리의 현대적 활용⁸²⁾



82) 성왕복 외, 「98헤어모드」, (사)한국이용사중앙회, 1998. p.56~58.

3. 맘보머리

맘보춤과 맘보바지가 성행하던 60년대 젊은이들이 선호했던 스타일로 가르마가 없으며 앞머리의 웨이브가 특징이다. 이전의 올백형은 빗과 포마드로 깔끔하게 뒤로 빗어 넘겨 주었지만, 맘보머리는 아이롱을 이용하여 약간 옆에서 뒤로 빗어 넘겨 주었다. 본 재현은 아이롱의 입수가 곤란하여 블로드라이(Blow dryer)로 시술했다.



(1) 헤어라인부터 브러쉬와 드라이를 이용해서 뒤로 넘겨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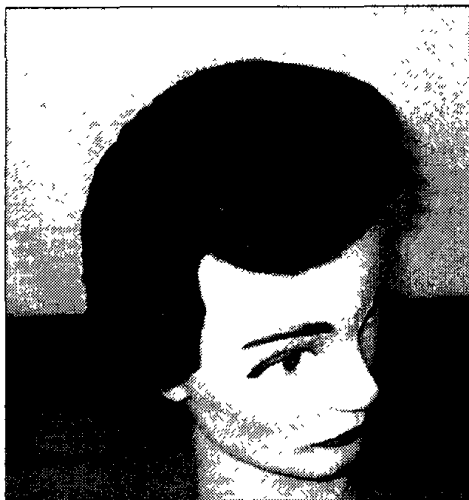
(2) 옆가르마가 생겨서 안되며 머리흐름은 약간 사선이다.



(3) 탑(Top)부분이 끝나면 사이드 머리를 약간 사선지게 뒤로 넘겨준다.



(4) 드라이가 끝나면 스타일링 제품을 바르면서 빗으로 마무리한다.



(5) 완성형(전두부)



(6) 완성형(측두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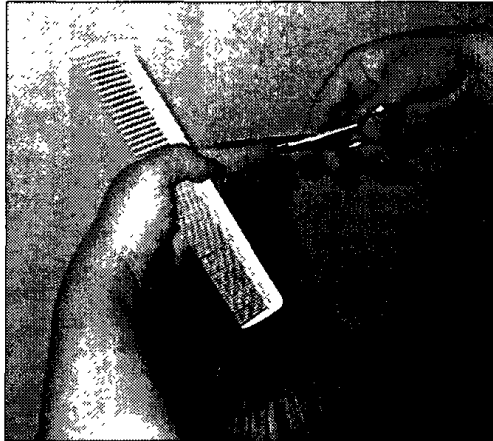


[사진 24] 맘보머리의 현대적 활용⁸³⁾

83) 성왕복 외, 앞의 책, p.34~36.

4. 상고머리

오늘날 가장 무난한 남성 헤어스타일로 윗부분의 머리는 가위로 지간 깎기를 하고 아랫부분은 바리깡으로 짧게 올려쳐 준다. 시술순서는 미용사마다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가장 일반적인 방법에 의했다.



(1) TP에서 임의의 길이를 정해 가위로 지간깎기를 한다.



(2) (1)의 길이에 맞춰 두상의 길이를 전반적인 자른다.



(3) 귀 위 부분부터 싱글링할 길이만큼 바리깡으로 잘라준다.



(4) (3)의 싱글링 폭과 균형을 맞춰 네이프와 반대쪽 귀 윗부분을 잘라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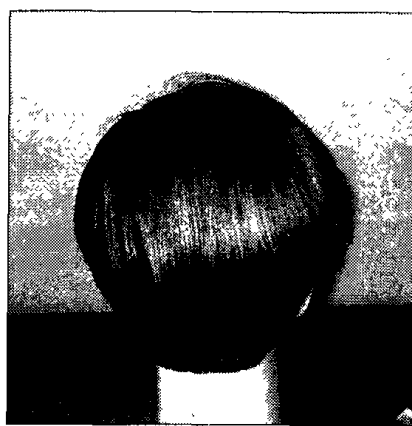
(5) 질감의 자연스러움을 위해 틴닝(술치기)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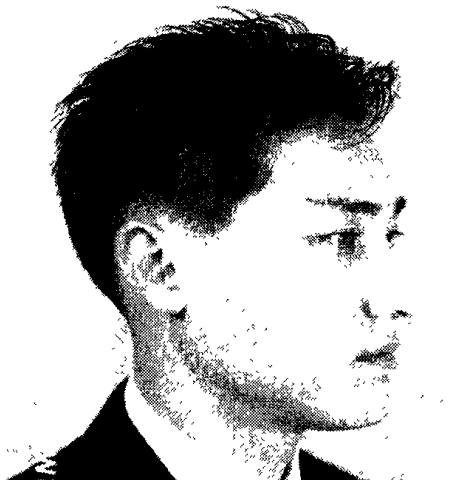
(6) 완성형(전면)



(7) 완성형(측면)



(8) 완성형(후면)



[사진25] 상고머리의 현대적 활용⁸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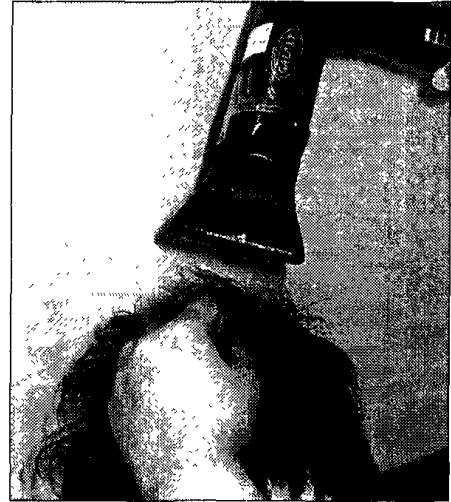
84) 성왕복 외, 앞의 책, p.42.

5. 염색이 가미 된 핑크형

과감한 색상의 염색과 기괴한 옷차림과 헤어스타일이 핑크의 전형적인 스타일이었으나, 우리나라의 정서상 극단적이기보다는 절충형으로 표현되었다. 90년대 '서태지와 아이들'의 영향이 컸으며, 여성들이 높게 세운 앞머리를 '닭벼슬', '자존심머리'등으로 불렀다.



(1) 핑크의 느낌이 강조될 수 있도록 위빙기법으로 브리치 한 후 형광 핑크계열로 재염색한다.



(2) 드라이 롤 브리쉬보다는 손가락과 드라이기로 볼륨을 표현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 특별하게 살리고 싶은 부위에 스프레이와 젤 등을 사용하여 뽀족하게 콕아웃한다



(4) 헝클어짐과 부풀음을 극대화하기위해서 백콤을 넣어주는것도 좋다.



(4) 완성형(정면)



(5) 완성형(측면)



데뷔무렵의 핑크형



02년 핑크의 변형인
모히칸스타일



90년대 중반 전체 염색의 핑크형

6. 아이롱퍼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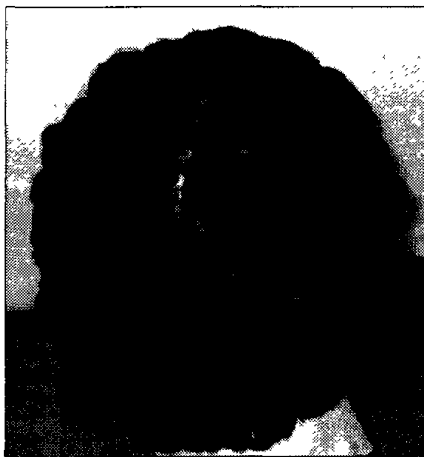
일반적인 퍼머롯드와 고무줄 대신 열과 아이론을 이용 한 특수 퍼머로 짧은 모발도 모근부터 볼륨이 연출된다. 본 재현은 모발길이가 12cm정도인 남성 상고머리에 시술했으며, 아이론의 굵기는 12mm이다.



(1) 아이롱퍼머 전용약 1제를 모발전체에 고르게 도포한 후 약 15분간 연화시키고 테스트컬 해서 물로 중간세척한다.



(2) 수분이 20%정도 남을만큼 타올드라이한 후 아이롱오일을 바르고 아이롱기구를 이용하여 컬을 만든다.



(3) 아이롱으로 컬을 모두 와인딩한 상태로 5분 정도 후 아이롱퍼머 전용약 2제로 중화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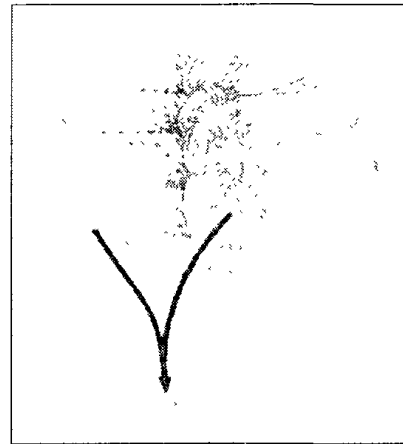
(4) 린스로 세척 한 후 원하는 스타일로 마무리한다.

7. 드래드(Dread)

레게(Reggae)라고 알려진 드래드 스타일은 땅는 머리형인 브레이드(Braid)의 일종으로 땅는 방법에 따라 다양한 종류가 있다. 길이를 늘리는 익스텐션(Extension)까지 결합할 수 있는데, 본 재현은 단발길이의 가발에 익스텐션하여 콘로루(cornrows)형으로 시술했다.



(1) 땅고 싶은 머리 가닥수만큼 미리 브로킹(Blocking)한다.



(2) 그림을 참고하여 스트랜드(strand) 각각을 다시 세가닥으로 나누어서 밖으로 집어땅기(visible braid) 한다.



(3) 짧은 길이를 길게 하는 익스텐션기법을 위해 드래드 전용 화이버(인조모발의 일종)를 덧대고 연결하여 땅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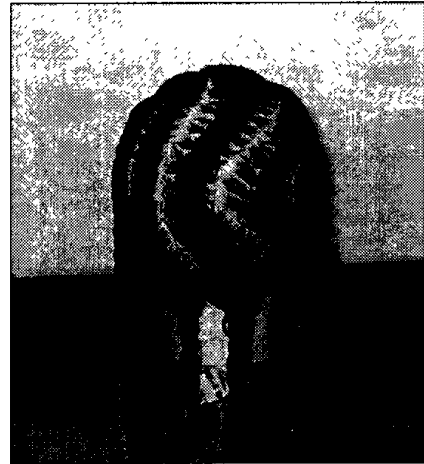


(4) 땅기가 끝나면 끝부분을 고무줄로 묶거나, 백콤(back comb)처리하여 풀려지지 않게 한다.



(5) 완성형(측면)

필요한 경우 장신구를 부착
할 수 있다.



(6) 완성형(후면)



V. 결 론

본 논문은 개화기 이후 남성머리양식의 변천을 고찰하고, 변화의 요인을 분석하고자 했다. 또한 각 시대의 대표적인 머리형을 직접 재현해보고, 이를 현대미용에 반영하고자 했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모발에 많은 의미를 부여했고, 다양한 머리형과 장신구로 단순한 美의 차원이 아닌 지위와 부귀(富貴)의 나타내고자 했다. 또한 절대적인 예(禮)와 순종의 표현이었고, 재앙을 막아주는 주술적인 의미까지 담고 있었다. 이처럼 머리양식변천의 이면(裏面)에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인 요인이 작용되었고, 그렇기에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데 머리형의 변천사는 매우 귀중한 자료가 되는 것이다.

개화기 이전의 대표적인 남성머리형은 땡기와 상투였다. 그러던 것이 1895년 단발령으로 상투가 잘려지면서 하이카라머리와 중머리가 등장하게 되었다. 고난이도의 이발기술이 필요한 하이카라머리는 신지식인이나 일본 유학생들에게 먼저 보급되었지만 일본에 대한 반항심으로 하이카라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었다. 더욱이 '신체발부(身體髮膚) 수지부모(受之父母) 부감훼상(不敢毀傷) 효지시야(孝之始也)'라는 유교적 전통사상속에서 단발령은 각종 항일항쟁운동의 원동력이 되기도 하였다. 패전 직전의 일본은 징병과 일반인의 정신무장등을 내세우며 중머리를 강요하였다. 까까머리라고도 부르는 중머리는 특별한 기술없이 두발 전체를 모두 밀어낸 형으로 1980년대 이전까지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대표적인 머리형으로 잔재하였었다.

6.25 전쟁으로 국내에 주둔하게 된 미군과 UN군들에 의해 외국문화가 유입되었고, 그들이 가져온 대중매체와 생활양식 등으로 유행양식이 바뀌게 되었다. 잡지나 영화 속의 배우들을 흉내 낸 스타일, 미군을 상대하는 직업 여성들의 요란한 치장들이 어우러져 또 하나의 유행을 만들어내 것이다. 포마드를 발라넘긴 상고머리와 젊은이들에게 인기가 좋았던 맘보머리가 당시의 대표적인 머리형이다. 특히 맘보머리는 아

이롱을 이용해 연출하는 스타일로 단순히 머리를 빗어 주는 이전의 머리형보다 한 차원 향상된 것이 특징이다.

70년대에는 전세계적에 불었던 히피열풍과 한국군의 월남전 파병이라는 사회적 요소가 맞물리면서 장발이 성행하게 되었고, 장발의 유행은 이용업계에 큰 타격을 주게 되었다. 또한 이발소에서 머리를 잘랐던 여성들이 산업화로 사회진출이 많아지면서 이발소보다 미용실을 선호하게 되었고 이 역시 이용업계 쇠퇴의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였다.

80년대에는 해외여행과 해외송금의 자유화, 교복과 두발의 자유화, 칼라 TV의 본격적인 보급, 86아시안게임과 88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 등의 호재로 이·미용계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남성들도 핀컬 퍼머나 롤 퍼머 등을 많이 했고, 전기바리칸을 이용한 싱글링 커트도 유행되었다.

90년대에는 남성들의 미적욕구를 반영하듯이 남성 패션잡지가 연이어 창간되었다. 이전의 잡지가 정치나 경제 및 신변잡기의 가십을 다뤘다면 남성들을 위한 미용과 패션을 본격적으로 기사화했고, 그 결과 보다 많은 남성들이 미용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게 되었다. 이 시기 남성 머리형의 가장 큰 특징은 염색이 가미되었다는 것이다.

2000년대의 남성 머리형은 특정 스타일의 유행보다는 개성에 맞게 연출하고 있다. 더불어 남성미용의 영역이 헤어에서 피부 관리나 메이크업까지 넓혀지고 있고, 이를 반영하듯 남성전용 피부 관리실이나 남성전용 색조화장품이 출시되고 있다.

머리양식의 재현은 현대 헤어디자인의 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투, 모판머리, 맘보머리, 상고머리, 염색이 가미된 핑크스타일, 아이롱퍼머, 레게풍의 드래드 등 일곱 가지를 재현해 보았다.

연구의 제한점으로는 머리형의 변천사를 주제로 선행된 연구가 적었고, 미용학적 견지의 접근이 미비했으며, 이용업계에서 체계적으로 수립한 내용이 부족한 상태여서 다각도적인 연구를 시도하지 못하였던 점이다. 이에 대한 고찰은 후속연구로써 보완하고자 하며 향후의 연구과제로써 이·미용의 비교연구와 의상변화에 따른 머리모양의 변화에 관한 연구를 과제로 남긴다.

	1895~1909년	1910~1945년	1946~1959년	1960~1969년
사회 · 문화 · 생활 환경	· 단발령(1895) · 대한제국 성립(1897) · 서구식 관복제정(1900) · 동호이발소 개점(1901)	· 한일합방(1910) · 최초 이용사 자격시험 실시(1923) · 화신미장원 개점(1933) · 일본육군복장을 남학생교복으로 변경(1941) · 해방(1945)	· 전국이용사총연합회창립(1946) · 최초 미용사 자격시험 실시(1948) · 한국전쟁(1950) · 휴전(1953) · HLKZ-TV개국(1956) · 대한미용협회창립(1957) · 최초의 패션쇼 콘테스트 개최(1958)	· 서울TV방송국 개국(1961) · TBC-TV 개국(1964) · 월남파병(1965) · 미니스커트 등장(1967) · MBC-TV 개국(1969)
유행 경향	· 한복간소화(장옷 폐지) · 양장도입(마고자, 조끼등장) · 검정 양산 유행	· 흰저고리와 검정 통치마 · 남학생 교복의 서구화 · 국민복, 간단복 등장 · 박가분 생산	· 구호물자 성행 · 밀리터리 룩 · 마카오 신사 · 햅번 스타일 · 콜드 크림	· 포마드 · 맘보바지, 판타 롱 · 월남치마
머리 형	· 남 - 상투, 땡기 · 하이카라머리 · 여 - 쪽머리, 땡기 등	· 남 - 중머리, 모자성행 · 여 - 쪽머리, 단발, 퍼머 등	· 남 - 모판머리, 짧은 상고머리 · 여 - 가봉퍼머, 바깥말음 등	· 남 - 상고머리, 맘보머리 · 여 - 튀기의 짧은 컷트, 가발
사 진				

	1970~1979년	1980~1989년	1990~1999년	2000년 이후
사회 · 문화 · 생활 환경	· 통기타 가수등장 (1970) · 10월 유신 (1972) · 장발단속 (1972) · 최초 미용종합지 월간 '현대미용' 창간 (1974) · 오일쇼크 (1979) · 컬러TV의 본격적인 보급	· 대한미용사회의 '미용회보' 창간 (1981) · 교복 두발자율화 (1982) · 프로야구개막 (1982) · 아시안게임개최 (1986) · 올림픽게임개최 (1988) · 해외여행자율화 (1989)	· 전문대미용과 최초개설 (1991) · 서태지와 아이들 등 랩 댄스 열풍 (1992) · 남성패션잡지 에스콰이어 한국판 창간 (1995) · IMF 체제 (1997) · 최초 남성전용 미용실 블루클럽 개점 (1998) · 일본문화개방 (1999)	뚜렷한 남녀의 구분보다는 각자의 개성을 연출
유행 경 향	· 히피 · 통기타 · 진 (청옷) · 미니스커트 · 핫팬츠 · 뺑바지	· 바리깡컷트 · 해외미용연수 성행 · 에어로빅 유행	· 서태지 룩 · 힙합패션 · 스포츠웨어 · 유니섹스 현상 · 노출패션	
머 리 형	· 남 - 장발 · 여 - 장발, 드라이, 비달컷트	· 남 - 바리깡컷트, 핑크 등 · 여 - 레저컷트	· 남 - 염색, 힙합 · 여 - 염색, 크니닉 개념도입	
사 진				

[도표 4] 연도별로 본 변천과정

참 고 문 헌

< 학위논문 >

김용문, “우리나라의 수발에 관한 연구” 성신여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2.

김향란, “개화기 여자머리양식과 재현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대학원 의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2.

나광주, “의복과 헤어스타일의 인상형성에 대한 관심도”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9.

< 학술지 논문 >

김문자, “삼국시대 머리 장신구에 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제9권, 제5호, 2001.

김용문, “수발양식의 상징성” 한국민속학회지 27호, 1995.

김희숙, “20세기 화장의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미용학회지, 2(1), 1996.

송주현, “우리나라 남성 수발의 변천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25(1), 1987.

이광호, “종교와 헤어스타일” 신앙과 지성 제 20호, 2001.

이민주, “상투와 단발령” 단국사학회지 제 31권, 1998.

이상원, “상투와 단발령 그리고 하이카라머리” 실천민속학회지 4호, 2002.

조기여 외, “일본 남성의 헤어스타일 변천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산업 학회지, 3(4), 2001.

< 단행본 >

강대영, 「한국분장예술」, 서울 지인당, 1999.

김국도, 「이용기술」, 강경문화사, 1962.

김소현외, “서울의 의생활 변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서울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 2001.

김수원, 「이용기술 테크닉 헤어디자인」, 도서출판 참, 2000.
 김진용, 「이용실기」, 한국산업인력공단, 1997.
 김희숙, 「한국과 서양의 화장문화사」, 청구출판사
 박상근, 「이·미용 연감대전 1999」 한국미용예술문화원, 1999.
 백영자 외, 「한국의 복식문화」, 경춘사, 2000.
 성왕복 외, 「98헤어모드」, (사)한국이용사중앙회, 1998.
 신우창, 「신우창의 왈 클리퍼 테크닉」, (주)에미트, 2001.
 신인섭, 「광고로 보는 한국 화장의 문화사」, 김영사, 2002.
 역사신문편찬위원회역음, 「역사신문-개화기편」, 사계절, 1996.
 오희선, 「재미있는 패션이야기」, 교학연구사, 2000.
 이연복 외, 「한국인의 미용풍속」 월간 에세이출판부, 2000.
 이용교재연구회 편저, 「종합이용이론」, 유신문화사, 1998.
 전완길 외, 「한국생활문화 100년」, 장원출판사, 1988.
 정승교 외, 「서울 20세기 생활·문화변천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2001.

< 인터넷 검색자료 >

[http:// www. allim.go.kr](http://www.allim.go.kr)
[http:// www. brandmajor.com](http://www.brandmajor.com)
[http:// www. kongsin.netian.com](http://www.kongsin.netian.com)
[http:// www. korabarber.com](http://www.korabarber.com)
[http:// www. shinbiho.com](http://www.shinbiho.com)
[http:// www. sinzo.co.kr](http://www.sinzo.co.kr)

< 구술자료 >

김수원 잠실롯데호텔이용원 원장
 안상수 인천이용기술전문학원 원장
 안정근 노보텔엠버서더호텔이용원 원장
 이명영 유신문화사 회장
 정봉춘 경기이·미용학원 학과장, 이용중앙회 감사

ABSTRACT

A Study on Man's Hairstyles Since the Late 19th Century's Civilization

Kim min joun
Major in Make-up Art
Dept of Fashion Art & Design
Graduate School of Arts
Hansung University

Recently, one's appearance has been regarded as one of his or her competitive edges in Korean society. A lot of men have become more interested than ever in improving their appearances through hairdo, skin-care, or even makeup, which was viewed as kind of a taboo in the past.

As a result, the marketplace for man-only beauty parlors and man's cosmetics has been growing rapidly. It is likely that men's interests in their looks will increase all the more. In this study, I examined:

(1) the traditional views on hairstyle in terms of representative symbolism reflecting one's social status and wealth, spiritual symbolism representing filial piety, and superstitious symbolism reflecting taboo and exorcism.

(2) man's hairstyles, which were in fashion during those days from the civilization to the post-liberation from the Japanese imperialism, and historical factors and background that affected men's hairstyles. Since the transition of hairstyles and fashion

reflects the social,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the study on them may serve as an important material to understand lifestyle in those days.

(3) some of post-civilization man's hairstyles in an attempt to reflect them in today's hairstyles. Besides, I structurized hairdressing tools, devices and cosmetics.

The study shows that historical background greatly affects hairstyles and people tend to express their oppression and liberation through the length of their hair.

Today's global trend is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barber and hairdresser has become irrelevant; gender barrier between men and women has been torn down; and advance in technology has accelerated the cycle of hairdressing techniques. Therefore, a study on man's hairstyles is crucial in actively responding to changes in global trend.